

애리

www.airforce.mil.kr



2006.5 / vol.335

월드컵 BOOM



5월호에는...

"월드컵 BOOM"과 함께

월드컵의 열기 속으로 풍덩 빠져보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다함께 즐겨보는 월드컵 응원 '꼭짓점 댄스'

8쪽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8

그 남자의 시각 10

그 여자의 시각 12

월드컵 응원전 14

대한공군의 꼭짓점 댄스 14

김 상병과 함께 꼭짓점 댄스 배워보기 16

부 록 17

2006 독일 월드컵 대진표 17



공군

May 2006 No.335



대한민국 대표팀의 독일 월드컵
우승을 기원합니다.

발행일자/2006년 5월 1일(통권 제335호) 발행인/공군참모총장
발행처/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02-506-6295, 042-552-6295
기획·편집/공군본부 정책홍보실 대위 강민정, 소위 손제연
디자인·인쇄/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2** 참모총장 스케치
- 4** 특별기고
공군 핵심가치의 발견
- 6** 공군혁신
「혁신 추진위원회」 무주 Workshop
- 18** 현장 속 현장
신세대 장병들의 지뢰제거, 그 현장을 가다!
- 21** 공군 공군인
레이돔 위의 마술사, 우리는 '스파이더 오형제'
- 24** 여기는 다이만
'다이만 지킴이' 헌병 24시
- 26** I Love Air Force
'공군의 추억'
- 28** 공군은 지금
- 32** 우리의 항공기
"우리의 하늘은 우리 항공기로!" KO-1 전술통제기
- 34** 우표로 보는 전쟁사
덩커크 해안의 기적과 프랑스의 행복
- 36** 전래동화로 보는 법 이야기
춘향전
- 38** 동아리 열전
방공포병사령부 영어동아리 'Confidence!'
- 40** 생각하는 그림
황제가 될 사주팔자
- 42** 테마가 있는 나들이
또 다른 낯선 여행을 꿈꾸며...
- 46**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아름다운 영어 베스트 10
- 48** 마음으로 읽는 글
행복추구권
- 50** 건강 365
잠 못 이루는 그대에게...
- 52** 공군 글마당
방공무기 통제사, 하늘을 날다!
영화 '트루먼 쇼'를 보고
- 55** 詩가 있는 풍경
밖으로 열리는 문
- 56** 책마을
존 바네스의 「케네디 리더십」
- 57** 기상전망대
꽃내향 가득한 5월의 햇살 아래
- 58** 독자의 소리
- 61** 독자퀴즈





1		
2	3	4

1. 참모총장과 일선 병사와의 대화

3월 30일, 제38전투비행전대와 미8전투비행단을 초도순시한 참모총장이 일선 병사들과 변화와 혁신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2. 터키 공군사령관 방한

'형제의 나라' 터키 공군사령관 일행이 4월 18일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의 공식초청으로 공군본부를 방문했다. 죄메르트(Faruk Comert) 사령관은 참모총장을 예방하여 '공군 회 공군 회의 활성화', '공사생도 상호 교환교육', 'PKO관련 협력', '방위산업 협력증진' 등 양국 공군간 현안 및 군사교류 증진방안에 대해 논 의했다.

3. 공군사관생도 대상 특별강연

참모총장은 4월 11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미래 지향적 지도자의 자질과 군인관,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참모총 장은 "미래지향적 지도자는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사고를 갖추어야 한다. 항상 정직하고, 용기있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장교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아끼고 개혁해야 하며 지식을 부단히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 전역 조종사 격려행사 거행

참모총장은 3월 27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전역 조종사 격려행사를 주관했다. 이 날 전역한 홍석모 소령(41세, 공사 36기) 외 48명의 전역 조종사들은 참모총장 으로부터 전역장과 선물을 받고, 동기들의 축가를 들으며 짧게는 13년, 길게는 18년 동안의 공군조종사 생활을 마감했다.



공군 핵심가치의 발견

공군 핵심가치선정팀 소령 김용태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은 물론 우리가 속한 조직에까지 파고들고 있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쳐지게 되고, 결국 조직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자각한 일류기업, 정부 등 공공조직에서는 조직특성에 맞추어 공통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핵심가치'를 발견하는 일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 공군도 지난 3월부터 '공군 핵심가치선정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핵심가치, 왜 중요한가?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 중 100년 넘도록 영속하는 기업과 곧 사라지는 기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의문에 제리 포라스 등의 경영학자들은 영속하는 기업엔 '핵심가치'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성원 모두가 공통된 가치관과 판단기준이 되는 핵심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정보화시대와 무한경쟁사회에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핵심가치는 조직의 성공 DNA와 같아서 조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공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핵심가치를 발견하고 정립하는 일부터 시작해

야 하는 것이다. 우리 공군도 앞으로 수없이 직면할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군의 의지와 구성원들의 공통된 뜻을 모아 함께 공유해야 하며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핵심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핵심가치란 무엇인가?

핵심가치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게 하는 원천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으로, 이는 마치 보이지 않으면서 배를 지탱해주는 닻(Anchor)과도 같으며, 집을 지탱해주는 주춧돌과도 같다. 다시 말해 핵심가치는 조직 내에서 일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져야 되는가에 대한 중심이 되는 가치이며, 동시에 대다수 공군인들이 공유하고 실천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핵심가치는 '공군인으로서 최선이라 생각하는 윤리적 원칙 또는 공통가치 및 행동판단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핵심가치가 중요한 이유〉

-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을 형성한다.
- 일과 의사결정에 있어 행동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된다.

핵심가치는 어떻게 발견하고 실천하는가?

핵심가치는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군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정립하는

것이다. 즉, 핵심가치는 우리 공군의 창군정신과 정체성, 존재이유, 비전, 목표 등을 추구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암묵지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 공군인이 참여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가슴에 와 닿아 실천할 수 있도록 핵심가치를 표현해야 한다. 그동안 '핵심가치선정팀'은 예비설문 조사와 워크숍을 통해 핵심가치 발견을 위한 설문안을 최종 작성하여 공군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통해 공군 현역 및 예비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제 전 공군인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최종 검토를 거쳐 핵심가치를 정립·확정·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전 공군인이 공유하고 행동화 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할 것이며, 인사·교육 제도와도 연계하도록 할 것이다.

핵심가치는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전 공군인이 공유하고 행동화 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핵심가치는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믿

어야 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며, 제도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 공군인의 하나된 마음으로, 공군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발판 삼아 핵심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한다면, '가치기반의 공군 운영'과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하는 원동력 마련' 그리고 '일과 의사결정에 실용적인 행동기준'을 갖게 되어 우리의 역량 또한 증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핵심가치를 체득화 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 홍보 등의 행동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전 공군인과 국민들의 좋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가치선정팀'은 전 공군인과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핵심가치의 발견은 물론 핵심가치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는 결연한 각오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미래의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공군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 ☘



「혁신 추진위원회」 무주 Workshop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혁신관리과 소령 **홍준표**

혁신 잘 돼가나?

공군 「혁신 추진위원회」가 공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4월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혁신추진전략은 리더의 솔선수범과 솔직함이 부하에 대한 따뜻한 신뢰감으로 표출되어 각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동참이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은 조급함이 없이 적절한 목표설정을 통해 중단없이 추진해야만 하는 것이다.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는 조급증과 냉소주의이다. 공군 장병이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혁신 담당자들에게 ‘혁신 잘 돼가나?’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혁신은 담당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조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공군본부 혁신움직임! 무주 워크숍 개최!

최근 공군본부에서는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조직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임무와 목표를 재확인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무주에서 개최된 「혁신 추진위원회」 워크숍이 바로 그것. 워크숍에 참석한 기획, 인사, 군수, 정훈, 교육, 작전 등 각 분야 위원들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는 공군조직의 분야간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워크숍에서 전투발전단은 ‘미국공군의 변혁(Transformation)과 한국공군의 혁신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 공군과 미국공군과의 Road Map을 비교해가며 우리의 건설적인 혁신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공군대학에서는 ‘공군의 현실 인식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군의 작전개념이 군작전 개념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효과증심작전’과 우리 공군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더하여 ‘공군 핵심 가치체계 정립’과 ‘공군 브랜드 전략’ 등 최고 브랜드로서의 대한민국 공군 건설을 위한 방법을 찾자는 강의와 토론회는 우리 공군인 모두가 함께 듣고 공감해야 했었다는 아쉬움마저 느낄 정도로 최고의 수준이었다.

특히, 지금까지 서로 문제점이 있다고만 인식했던 기획, 인사, 조직, 군수, 정보 등 공군 전 분야에 걸쳐 공군의 현실인식과 미래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질문과 소위원회별 토론도 진행했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한 토의는 「혁신 추진위원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공군 전 부대(서)에서 이러한 분야간, 특기간, 계급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한 것이다.

무주 워크숍의 성과... 대화를 통한 분야간의 갈등 해소 창구 마련!!

우리는 아직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금번

무주 워크숍에서 진행된 소위원회별 토론은 앞으로 있을 공군 각 분야와 부대에서 정착시킬 토론 문화의 선례라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인간관계이다. 인간관계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자는 '7C'를 제안하고 싶다. 바로 Conversation(대화), Communication(의사소통), Connection(관계), Challenge(도전), Chance(기회), C.E.O(최고경영자)의 의지, Change(변화)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 브랜드 대한민국 공군은 개인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C.E.O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인식한 문제를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중 토론이 가장 쉬운 지름길이다.

토론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의견을 경청해 줄 수 있는 대화(Conversation)의 기술이 필요하고, 상호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기술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상호 인간관계(Connection)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더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대안제시를 위해 도전(Challenge)이 필요하다. 이때 준비된 조직과 구성원만이 목표에 도전하기 위한 기회(Chance)를 잡게 되는 것이다. 강력한 최고경영자(C.E.O)의 의지와 구성원들의 변화(Change)에 동참하는 용기는 물론 필수이다.

희망과 행운의 숫자 럭키세븐, '7C'를 바탕으로 토론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Open Door, Open Mind, Open Eyes'를 통해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책 읽고 학습하는 공군본부의 분위기!

우리에게 혁신은 왜 필요한가? 변화하지 않고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혁신의 필요성을 논하지 말자. 개인이나 조직이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혁신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시 피드백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중단 없이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공군본부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영전략에 대한 학습을 하며 큰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공부하는 지휘관!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지휘관! 이제 공군본부는 타 기관과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탁월한 집단이 되기 위해 팀워크를 다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무주 워크숍은 공군 각 분야에서 선발된 처·과장급 혁신추진위원들의 '학습의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하여 예하 부대에서도 혁신의 불씨를 계속해서 지펴 '토론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제2차 33인의 혁신 Warrior' 토의 내용을 중심으로 점점 열기를 더 해가는 '공군혁신'의 현장을 엿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왜 우리는 군대 축구에 열광하는가?

월드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달의 화두는 단연 축구다. 그래서 군대라면 빼놓을 수 없는 축구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아가고자 한다. 축구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서도 승부의 묘미를 세련되게 다듬어온 전통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집단생활을 요구하는 군의 특수성이 스포츠로서의 축구에 또다른 묘한 의미를 더해준다.

자존심을 건 승부의 세계, 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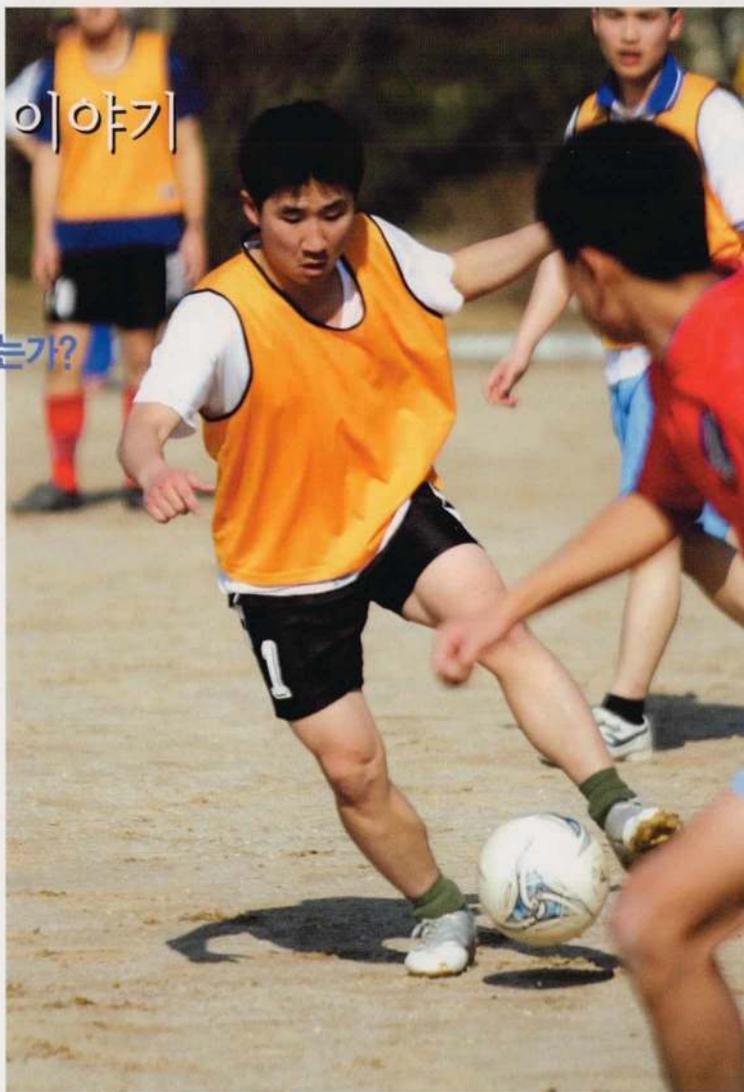
승리는 전시에 있어 군대의 궁극적인 목표다. 스포츠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군인이라면 가져야 하는 필승의 신념을 스포츠를 통해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대와 부대 사이의 자존심을 건 한 판 승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몸으로 느끼는 동료애

팀 전력 극대화를 위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내무실에서 살을 부비고 살아야 하는 그들이, 어려운 대화 없이 상대방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억제된 남자다움을 과시한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고 했던가? 군대라는 특수 상황에서 상급자에 대한 복종심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자신의 우월한 남성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은 억제할 수가 없는 것. 탁월한 기량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계급 간 갈등을 해소한다

훈련단 시절 조교 또는 교관팀과 훈련생팀간 주말에 하던 축구경기를 기억하는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강한 훈련과 복종을 요구하던 그들과 갖는 축구경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축구경기가 간혹 고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충성축구로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0순위는?

바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다. 우리에게 재미있는 군대축구 이야기지만 때로는 들어주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필요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축구 그 자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신은 왜 군대축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또 당신의 여자친구는 왜 듣기 싫어하는지 한 번 생각해보았다.

군인인 당신과 군인이 아닌 사람들... 군대축구에 대한 가벼운 논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군인인 또는 군인이었던 그 남자의 시각,
그리고 그 여자의 시각.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내 삶의 전쟁



글·예비역 병장 강 한 철

전국 각지의 군부대마다
대대 또는 내무실별로
하나의 축구팀이 있다.

군대축구는 무엇인가? 군대에서 하는 축구를 우스갯소리로 군대스리가라고 한다.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빗댄 말이다. 전국 각지의 군부대마다 대대 또는 내무실별로 하나의 축구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하는 축구는 일반적인 축구가 아니다. 파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전투축구라고도 불리는 군대축구는 군인인 이상 축구를 해도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담고 있다. 만약 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내무실의 분위기는 전쟁에서 진 것과도 같이 참담해지기도 한다.

또한 병사들의 축구는 계급에 따라 포지션이 결정된다. 사회에서 축구를 할 때는 최전방 공격수를 골 잘 막곤 했었다. 하지만 이등병 시절, 내 포지션은 후방 수비수. 공격수는 마음은 지단인데, 몸은 경단이 되어가는 고참병장들이 막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여건에서도 이겨야만 했다. 최고참 병장에게 골 세리모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내무실원의 임무였으니까.

좌부터 시종 남부군단 장사



상대편 내무실의 공격수로 축구선수 출신인 후임병이 들어왔을 때, 난 주저없이 강한 태클을 걸거나 몸을 밀어댔다. "반칙 아닙니까?" 난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다. "반칙? 반칙이란 말은 내게 사치야." 이등병 시절 내게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라 바로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었던 것이다.

사실 내가 참전용사였다면 구태여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리라. 실제 전쟁이야기만 하더라도 입이 열개라도 모자를 지경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전시상황이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에서는, 전쟁과도 같은 경험이 군대에서의 축구경기에 모두 녹아있는 것이다.

말주변 없이 강요하듯 군대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썩 보기 좋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축구이야기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군대생활의 전반을 함축하고 있는 에센스라는 것을.

사실 난 아직 여자친구에게 진솔하게 군대이야기를 해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쉽게 지치고 지겨워하리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오늘 저녁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포장마차에 가서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를 한 번 해보려고 한다. 하지만, 이해하지도 못할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순간을 나를 이해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떤 과장도 없이 성실하게 설명해 보려 할 것이다.

전쟁과도 같은 경험이
군대에서의 축구경기에
모두 녹아있는 것이다.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정퍼민승영, 파평리군인회 사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꼭 해야만 해?

글·손혜영/프리랜서 칼럼니스트

군인이라면 더욱 잘 알만한, 농담 아닌 농담이 있다.

‘여자들은 군대이야기를 싫어한다. 여자들은 축구이야기도 싫어한다. 그러나 가장 싫어하는 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개팅이나 술자리에 나가면 꼭 이 이야기를 꺼내고야 마는 남자들이 있다. 미리 경고하건대, 마음에 드는 여성이 그 자리에 있다면 절대 이러한 소재를 꺼내지 말라.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이 한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안다. 절친한 초등학교 동창 녀석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만큼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어딴다고!”

그러나 어쩌겠나, 어지간히 마음 넓은 여자도 이 소재 앞에서는 여지없이 하품이 나오는 것을.

만약, 당신이 여자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한 가운데에 있다고 상정해 보라.

입대한 여자들 아니고서야 솔직히 우리 여자들은 당신들의 군대 조직을 잘 알지 못한다. 가족 중 누군가 군대에 들어가거나 애인이 입대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 첫 휴가는 언제 나오는지,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기본 사항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나라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여자들이라고 매도하지는 말아주었으면 한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한 이야깃거리가 나오면 입을 다물고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 아닌가?

만약, 당신이 여자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한 가운데에 있다고 상정해 보라. 그녀들은

'남자' 이미 분명한 당신을 눈앞에 두고 최근 케이블에서 방영하고 있는 외국 드라마 시리즈 이야기에 열을 올리기를 시작할 것이다. 생소한 외국인의 이름이 철수, 영희 나오듯 술술 이어지고, 곧 주인공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비평까지. 이 상황에 그녀들이 당신에게

“너 〈섹스 앤 더 시티〉 중 누가 제일 맘에 들어? 아무래도 스타일 좋은 캐리보다는 조신한 샬롯이겠지? 안 그래도 마늘로 블라닉을 사볼까 해서…”

당신은 분명 이 기나긴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축구이야기라니. 아무리 당신의 친구들이 지금 월드컵에 환호하고 꼭짓점 댄스까지 배우고 있을지라도 그녀들이 열광하는 건 축구 그 자체가 아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축구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국제경기만요”라고 대답하지 않나? 우리들은 남자들의 뛰어오르는 모습보다는 그 축제의 열기에 더욱 흥분한다. 게다가 그 부대에서의 작은 경기 속에는 베컴도, 라울도, 박지성도 없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여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남자들의 말하는 태도에 있다.

“내가 말야, 우리 병장의 패스를 받아서 오버헤드킥을 멋지게 날렸지 않았겠어. 우리 팀 부대원들은 모여가지고 그동안 갖고 닦았던 세리모니를 보여주면서…”

헉, 갑자기 축구의 천재 호나우두가 나타났다. 정말 그 경기가 그렇게 대단했었는지는 몰라도 침 튀겨가며 늘어놓는 그의 허풍을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겠는가. 한국 4강전을 설명해도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명심하라. 아무리 백치미를 풍기는 여자라고 해도, 남자들의 허풍과 과장을 그대로 믿어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한여름 이대 앞에서 쇼핑 조금만 하려고 해도 땀을 줄줄 흘리고 에어컨 나오는 공간만 보면 뛰어 들어가 축 늘어져버리던 당신의 모습을 이미 확인한 바 있는 그녀. 그런 그녀가 당신이 베컴처럼 멋진 어시스트를 하고, 칸처럼 환상적으로 골을 막아냈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걸, 몸에 굴곡 하나 없이 통통한 통나무 몸매를 한 여자가 스키니 진을 입고 거리를 나섰더니 남자들이 침을 질질 흘렸다면 공주병에 걸려 떠벌이는 것과 별 차이 없는 짓이다.

“그럼 친구들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하고 의기소침해 할 필요는 없다. 이제와 병주고 약주는 말 같지만 깔끔하게 양념된 생소한 소재는 때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아예 허풍을 시작과 끝으로 당신의 개그적인 면모를 되살린다면 당신이 반니스텔루이가 되더라도 모두들 환영할 것이다. 단!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재밌어야만 한다는 거다!

우리들은 남자들의 뛰어오르는 모습보다는 그 축제의 열기에 더욱 흥분한다.

그의 허풍을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겠는가.

어려운 점은 재밌어야만 한다는 거다.



사진 공군본부 중사 편보현

월드컵을 응원합니다! 대한공군의 꼭짓점 댄스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무게도 날려보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춤이다.
그래서인지 처음은 부인의 외도 현장에서 하염없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중양전산소(이하 중전소)의 군인과 군무원들은 컴퓨터와 관련된 각종 질병에 시달리거나
내성적으로 변화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

어느 날 중전소장이 그들에게 은근슬쩍 추파를 던졌다.
“저와 춤 한 번 추실래요?”

그들의 댄스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댄스는 밝은 아침햇살과 함께 시작되기에 경쾌하다.

월드컵은 전 세계의 축제고 그 응원전은 온 국민의 파티다. 그 파티에 군인과 군무원들이라고 해서 빠질 이유는 없다. 파티의 흥겨움은 댄스를 통해 두 배가 된다. 이번 월드컵 파티의 공식 댄스 코드는 바로 꼭짓점 댄스! 모 TV프로그램의 상업적 성향에 관한 비판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꼭짓점 댄스가 흥겹고 배우기 쉬운 시기적절한 응원동작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중전소가 춤바람이 나게 된 사정을 알아보고, 이 기회에 중전소의 한 병사로부터 꼭짓점 댄스를 간단히 배워보는 건 어떨까?

아직 일과 시작 전 열댓명 정도 모여서 조촐하게 춤을 추고 있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 좁다면 좁은 옥상에 60여명이 운집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나마 사진을 찍는단니까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시켰다는 후문이다. 역시 군대는 군대인 것인가.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지하 기계실에 틀어박혀 있기 일췌다. 이러한 이유로 일조행사는 야외에서 반드시 실시한다는 것이 중전소장(대령 김종수)의 고집이다. 몇 해 전에는 일조행사에서 태권무를 시도해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려워 금방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TV에서 본 꼭짓점 댄스는 중전소장의 사관학교 시절 응원동작과 닮아 있었다. 잠바나 망토를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 응원하던 시절이 생각났다. 쉽고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에 농담삼아 말을 꺼냈던 게 화근이었다. “일조행사 때 꼭짓점 댄스 어때?”

댄스에는 문외한일 것 같았던 중전소 사람들. 그들이 숨겨진 춤바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새 중전소의 자유계시판에는 꼭짓점 댄스 강습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고, CD플레이어 마련하는 것은 일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언제부턴가 발이 맞기 시작하면서 그 진동으로 인해 지금은 CD플레이어가 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의 무아지경에 이른 춤을 보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졌다.
‘그렇게 쌓인 게 많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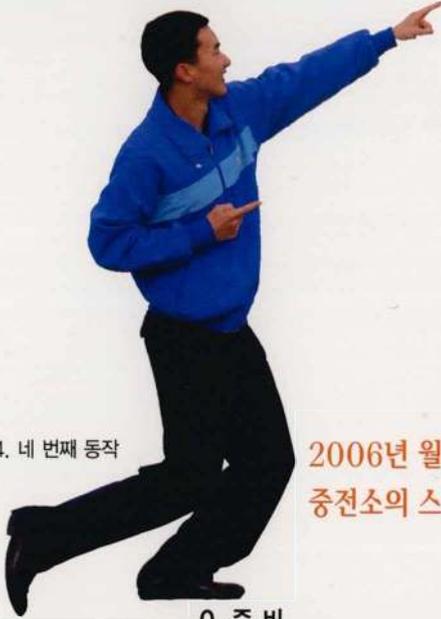


김 상병과 함께
꼭짓점 댄스

배워보기

사진·중사 편보현/사진편집·병장 허수현

4. 네 번째 동작



2006년 월드컵 응원전에 참여하기 위해 이제 꼭짓점 댄스는 필수!
중전소의 스마일 맨 김민철 상병과 함께 꼭짓점 댄스를 차근차근 배워보자.

0. 준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꼭짓점 댄스의 강의에는 '건방진 표정'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나, 밝은 공군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됨. 우리 김 상병과 같이 해맑은 미소를 짓도록 하자. 몸에 힘을 빼고 팔을 편하게 흔든다. 윈다리는 흥겨이가볍게 흔들어준다.



0. 준비

1. 첫 번째 동작

팔을 벌리고 가슴을 내밀어 주면서 양쪽 다리를 번갈아 바깥쪽으로 찌는다.



1. 첫 번째 동작

2. 두 번째 동작

앞으로 손발을 엇갈리면서 네 발짝 나가면서 마지막 스텝에 발뒤꿈치를 찍어준다. 최대한 흥겹게!

다시 뒤로 네 발짝 오면서 마지막 발에 몸을 90도 왼쪽으로 돌린다.

1, 2번 동작을 4회 반복하면 360도 돌아 정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2. 두 번째 동작

3. 세 번째 동작 - 강약약약 마름모 스텝

발 앞에 마름모가 있다고 가정하고 오른쪽 꼭짓점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강(왼발)-약(오른발)-약(왼발)-약(오른발) 스텝을 밟아나간다.



3. 세 번째 동작

4. 네 번째 동작 - 허슬(Hustle)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네 박자마다 박수를 친다. 오른쪽으로 팔을 쭉 뻗고, 고개를 가볍게 튕겨 손끝을 바라본다. 동시에 살짝 뛰어 오른쪽 앞으로 네 걸음 나간다. 네 번째 걸음에 손뼉을 쳐주고, 다시 반대쪽(왼쪽) 방향으로 나아간다. Ⓢ



2006 독일 월드컵 대진표



날짜	시간	장소	대진
2006년 6월 13일	22시 00분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vs 토고
2006년 6월 14일	01시 00분	슈투트가르트	프랑스 vs 스위스
2006년 6월 19일	04시 00분	라이프치히	프랑스 vs 대한민국
2006년 6월 19일	22시 00분	도르트문트	토고 vs 스위스
2006년 6월 24일	04시 00분	쾰른	토고 vs 프랑스
2006년 6월 24일	04시 00분	아노버	스위스 vs 대한민국

상기 일정은 한국시간 기준임.

개최일정 : 2006년 6월 9일 ~ 7월 9일



신세대 장병들의 지뢰제거, 그 현장을 가다!

방공포병사령부 소령 김태봉



안전선언문 낭독

첫째! 국민의 안전, 둘째! 우리의 안전

지뢰제거로 시작된 방공포대의 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뢰제거를 시작한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두렵지 않습니까?” “예!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젊다는 것. 패기와 열정으로 뚝뚝 뭉친 우리 공군의 젊은 방공포병 용사들이 겨우내 얼어 버린 땅을 녹여내는 봄기운과 함께 지뢰제거 작전에 착수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걸음걸음 만큼이나 그 표정 또한 진지하다.

이번 지뢰제거 작전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작된 것.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남아있는 지뢰를 모두 제거하고야 말겠다는 우리 신세대 장병들. 그 마음이 가늠하고 기특하기만 한데... 선불리 나설 수 없는 위험한 일에 자진하여 임하는 그들의 속사정이 새삼 궁금하다.



지뢰제거 준비

방공포병사령부 지뢰제거 작전

합동참모본부 주관의 ‘2006년 전반기 지뢰제거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방공포병사령부는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방공포대를 중심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계획된 지뢰제거 작전에 전면 돌입했다.

1998년부터 실시한 지뢰제거 작전을 통해 2005년까지 30개 기지의 지뢰를 제거하였으며, 올해에는 육군 주관으로 지뢰제거를 실시하는 6개 기지와 공군 주관으로 지뢰제거를 실시하는 8개 기지가 방공포병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지뢰를 제거할 예정이다.

지뢰제거 작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까지 성공적이고 안전한 지뢰제거를 위하여 지뢰제거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뢰 공압기, 굴삭기, 지뢰제거손 등 전문 지뢰제거 장비숙달 등의 교육과 훈련을 완벽하게 실시했다.



지뢰제거 장구

지뢰 매설지는 한치의 오차나 순간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는 살얼음판이다. 그만큼 작전수행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전에 임하는 순간 순간, 그리고 하루 하루의 임무를 마치고 지뢰지대의 철책선을 넘어와 작업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머리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은 두근두근 한다.

지뢰제거 작전 지원이요? 경쟁 치열했습니다

지뢰제거에 있어서 전문기술, 노하우와 안전장비 숙달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이는 곧 지뢰제거에 임할 '최정예 요원들'이다. 그간 간부 위주로 구성되었던 지뢰제거 작전팀은 병사들의 참여도 유도하였는데... 이에 병사들의 지원은 '기대이상'이었다. 지원동기와 각자의 포부를 밝힌 병사들은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뢰제거 작전 정예 요원'이 되었다.

이번 지뢰제거 작전에 지원한 김대곤 상병(22세)은 "처음에 지원할 때는 두려운 마음에 고민도 했지만, 막상 지뢰제거 작전 요원이 되고 보니, 보람과 성취감에 마음 뿌듯하다."며, 군인으로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뢰제거 작전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뢰제거는 다소 위험이 따르고 장병들의 안전과 직결된 일인만큼 지뢰제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귀한 우리 아들 혹시나 다칠세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진대... 아들들의 굳은 의지는 부모님의 염려와 반대를 넘어 동의를 얻어내기에 충분했다.

한 발의 지뢰도 남김없이. 전진 또 전진이다

지뢰제거는 한 포대에서 2개의 분대, 각 분대는 2개의 조로 나누어 실시한다. 비탈진 경사면에 자칫하면 흩이 흘러내려 미끄러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바닥에 철판(PSP판)을 대고 작업에 임한다. 지뢰제거를 위해서는 작전에 임하는 요원들의 안전이 최우선. 헬멧부터 보호의, 장갑, 신발 등의 안전장구를 철저히 갖춰야만 지뢰지대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완벽한 지뢰제거 작전 임무완수를 위하여 전문적인 장비들이 총동원된다. 우선, 요원들은 지뢰 공압기를 통해 세심하게 지뢰매설 여부를 확인 또 확인한다. 지뢰매설 여부가 확인되면 굴삭기 및 지뢰제거 손과 제거망을 이용하여 지뢰를 제거하고, 전문 폭발물 제거반에 의해 완전 분리·제거된다.



지뢰



지뢰제거 작업



안전을 위해 조심조심



지뢰제거 현황판

이렇게 지뢰매설지대 일부의 안전여부가 확인되면, 요원들은 조심스레 전진한다. 제8990-5부대 지뢰 제거반 팀장으로, 완벽한 지뢰제거와 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문 청 대위는 “산 속에 매설된 지뢰는 누군가가 꼭 제거해야만 하는 폭발물입니다. 선불리 나설 수 없는 일에 자진하여 임하는 팀원들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서로 아끼고 챙겨주면서 지뢰제거작업에 임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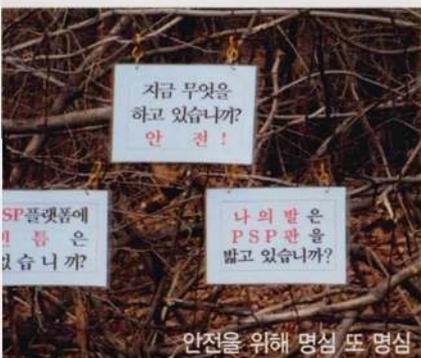
지뢰제거반이 지나간 자리는 잡풀, 잡목은 물론 크고 작은 돌덩이들도 없이 가지런하다. 혹시 발견하지 못한 지뢰가 있거나 없을까 하는 마음에 세심하고도 꼼꼼하게 구석구석 탐지하고 또 탐지한 지뢰제거반의 열성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일반 등산객이나 민간인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

지뢰제거 요원들의 배려와 우정은 큰 힘!

현재 지뢰제거 작전은 각 포대와 대대의 지원요원들과 간부를 포함하여 한 팀에 23명씩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각자 다른 소속이었지만, 지뢰제거 작전을 위해 한 팀을 이룬 후,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면서 생겨난 소속감과 동지애는 남다르다. 처음의 서먹함은 간데도 없이, 이젠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격려하면서 24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 항상 긴장과 함께 하는 작전인만큼 일분일초가 초조하고 조심스럽다.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고... 하루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한마음 한목소리로 안전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린다. 내 옆에서 함께 잠들고, 함께 눈뜨는 나의 소중한 동료와 역시 그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을 나. 오늘도 주어진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고, 장구를 해제하며 나오는 그 순간만큼 세상은 우리 것이다.

나른한 봄날.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군 생활에 지뢰제거 작전이 ‘활력소’가 된다고 말하는 이들. 봄과 함께 시작된 방포사의 지뢰제거 작전! 지뢰밭에 발을 내딛는 마음이야 천근만근이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단 하나의 지뢰도 남김없이 제거하고야 말겠다는 이들의 패기와 의지는 봄의 나른함을 떨쳐 내고 있었다. ☺



안전을 위해 명심 또 명심



서로간의 피로를 덜어 주는 장병들



긴장을 풀기 위한 닭소

레이돔 위의 마술사, 우리는 '스파이더 오형제'

군수사령부 중위 박준하



스파이더 맨? No, '레이돔 정비사'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폭발물을 제거하는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 폭발물 처리반, 아직 완벽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항공기의 성능을 시험해야 하는 시험비행조종사 등 군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많이 있다. 이에 못지 않게 27m 높이의 레이돔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생명을 로프 하나에 의지하고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레이돔 정비사'들이다.

군수사령부 제83정보통신정비창 방공포공장에는 전국의 험한 산들에 위치한 사이트 기지의 레이더 보호막인 레이돔을 정비·보수하는, 우리 군에서 유일한 레이돔 정비사들이 있다. 손재용(6급, 57세) 주사, 김종원(6급, 44세) 주사, 최진영(7급, 40세) 주사보, 이원기(7급, 39세) 주사보, 박재완(9급, 28세) 서기보 등 나이로 따지자면 거의 3대에 걸쳐있는 이들이지만, 수 십 미터의 높이에서도 두려움 없이 눈이

내리거나 폭풍이 불거나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부러진 레이돔을 말끔하게 마술처럼 고쳐내는 이들. 이들 5명을 우리는 '스파이더 오형제'라 부른다.

과연 레이돔 정비사는 어떤 일을 하기에 '레이돔 위의 마술사', '스파이더 맨'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일까?

'레이돔 정비사' 탄생의 순간

1950년대 초부터 사이트에 레이더를 운용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67~'77년까지는 레이돔 창정비를



미국 민간회사를 통해 한 기당 8천5백 달러의 어마 어마한 정비비를 지불하면서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77년, 83장에서 미국 기술교관을 초빙, 당시 7명의 정비요원을 선발하여 2개월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78년부터는 창에서 독자적으로 레이돔 정비를 하게 되었다. 30년 동안 레이돔 정비사로 일한 레이돔조의 조장 손재용 주사는 그 당시 7명 중 1명. 나머지 요원들은 일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다 떠나고 현재는 손 주사만 남았다.

레이돔은 '에버랜드 원형돔' 모양이다?

레이돔은 레이더 안테나를 둘러싸고 있는 덮개로 레이더 안테나가 주위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테나의 부식, 강풍에 의한 안테나의 손상,



보기만 해도 아찔한 레이돔 정비사들의 작업 현장

기타 낙뢰 등으로부터 안테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돔 모양의 구조물이다. 쉬운 예를 들자면 에버랜드의 큰 원형돔의 모양을 생각하면 된다.

레이더가 정상 작동되기 위해서 레이돔은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에 레이돔이 부서지거나 도색이 벗겨지면 레이돔 정비사들이 출동하여 레이돔을 정비·보수한다.

방공관제를 위해 사용되는 레이더 레이돔은 격오지 사이트에 위치하고 있다. 레이돔 도장과 보수작업 시 작업자는 돔의 꼭대기에 있는 도르래에 걸린 로프에 의지하여 7~28m 높이의 돔을 상하좌우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에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도장을 위한 페인트 작업을 할 때에는 전파가 레이돔을 투과할 때 페인트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이돔 전체의 페인트 층을 균일하게 해야 한다. 능숙한 기술은 필수. 능숙한 레이돔 정비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경력은 최소 3~5년. 현재 레이돔 정비사 2년차인 막내 박재완 서기보는 이런 이유로 선배들로부터 한창 배우고 있는 중이다.

레이돔 정비사들은 전국의 사이트 기지들에 연간 18회 이상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일수로는 80~90일, 월 평균 2~4회의 잦은 출장이다.

여기서, 의문 하나! 왜 레이돔 정비사들은 모두 군무원일까? 이유는, 현역 군인들은 배속지를 자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에 비해 군무원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며 그 만큼 한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돔 정비사 오형제, 그 아찔한 순간들

로프 하나에 의지하여 고공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수는 곧 죽음으로 직결된다. 한 예로 '89년 8월 1일 한 사이트에서 레이돔

창정비 중 정비사 1명이 작업 부주의로 높이 28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팀의 조장인 손 주사에게는 30년의 경력만큼이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다. 예로 '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섬에 위치한 레이돔의 레이더 패널(덮개)이 강풍에 날아가서 긴급보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한순간이라도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으면 항공기 운행이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곧 우리 영공방위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풍 속에서 강풍에 로프가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로프 한 가닥에 생명을 의탁하고 27m 높이에서 작업을 수행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팀워크. 손 주사와 조원들의 사투 끝에 사이트는 완전히 정비되어 계속 작업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완벽한 임무의 시작은 완벽한 준비!

레이돔 정비사들은 높은 높이에서 로프 한 가닥에 몸을 의지하고 임무를 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보수·도색 작업 시에 사용되는 콤파운드, 시너 등 화학약품의 독한 냄새를 견디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인만큼 완벽한 작업도구와 훈련은 필수.

작업을 위한 풀세트는 작업로프, 보조로프, 안전모,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최근에는 로프 풀림이나 도르래 문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정비사들의 안전을 더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매년 3월에는 83장과 사이트에서 정비사

안전교육, 체력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해 잠재 위험요소를 색출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5명의 정비사들이 암벽등반 등으로 팀워크를 다지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훈련을 할 때에는 부대에 있는 전봇대가 훌륭한 훈련도구가 된다.



아름다운 그들의 미소

너무나 위험하기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으려 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보상도 바라지 않으며, 아무런 불평 없이 겸손하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있는 5명의 레이돔 정비사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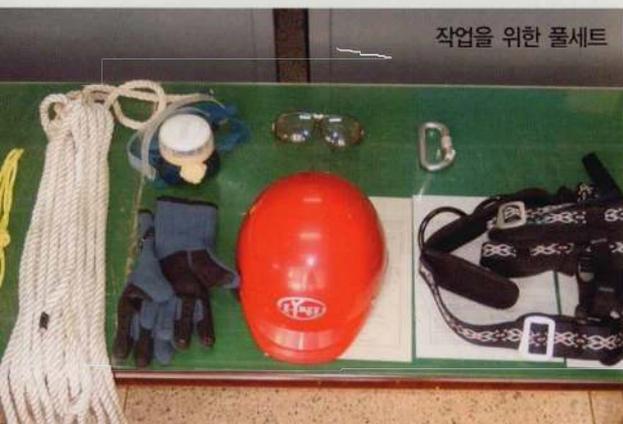
P.S

- 레이돔 정비사들의 활동범위는 공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육·해군 가리지 않고 레이돔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출장을 가서 정비를 하고 있다.
- 부대에서는 정비사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체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일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주저하기도 했다.



출동 준비 끝!

작업을 위한 풀세트





‘다이만 지킴이’ 헌병 24시

제58항공수송단 상사 박래주

가을 단풍으로 산들이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할 무렵, 나는 쿠웨이트행 전세기에 올랐다. 쿠웨이트 무바라크 국제공항에 내리자, 숨이 턱턱 막힐 듯한 짙더위가 나를 반겼다. 도로 주변으로 황량하게 펼쳐진 사막을 1시간여 가로질러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로 향했다. 과연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상념에 잠긴 것도 잠시... 비행기지에 도착하여 검문검색을 받고, 이중·삼중의 삼엄한 경계시설을 통과한 후야 가까스로 부대 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 주기장엔 걸프전 당시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천장이 심하게 부서진 이글루 여러 개가 전시하듯 방치되어 있었다.

‘아, 이곳이 정말 실제 전쟁터로구나…….’

철통 기지경계

연일 30~40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열기, 이삼일이 멀다하고 불어오는 강한 모랫바람. 당장 우리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적은 이라크 저항세력이 아니라 시시각각 우리를 괴롭히는 최악의 환경조건이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싸우고, 야간엔 두터운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를 해야만 하는 이국 땅. 하지만, 다이만 부대의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헌병요원은 이라크 전장의 하늘을 누비고 임무완수 후 복귀하는 동료들이 이곳에서만큼은 편히 쉴 수 있도록 24시간 철통 경계에 임하고 있다.

VIP 경호 및 동맹군 유대강화 활동

다이만 부대에는 해외 파병부대의 특성상 파병요원 교대시 전세기편으로 군 업무관련 주요 보직자들이 지도 방문을 오신다. 주요 VIP와 지도 방문단은 이곳 다이만 부대를 경유, 대한민국 공군의 C-130 항공기를 탑승해야만 대공위협이 상존하는 전장의

하늘을 뚫고 전술비행을 통해 자이툰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로 갈 수 있다. VIP들을 정해진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경호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막중한 임무 중 하나이다.

쿠웨이트 비행기지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생각보다 절차가 훨씬 까다롭다. 기지 출입지역의 검문·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미군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문하는 VIP 일행도 부대 출입에 장시간 지체하게 되고, 때론 신분확인 불가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에 평소 동맹군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주 1회 동맹군 헌병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비행단 위협등급 검토, 정보 교류와 상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바이퍼 패트롤(Viper Patrol)’, 동맹군 전투수행 능력 습득

미군은 비행기지의 외곽 5km 구간 이내의 기지

방어를 담당하고 있으며, 24시간 무기와 탄약을 실은 차량으로 완전 무장한 채 '바이퍼 패트롤(Viper Patrol)'을 수행한다. 부대 내 지역은 CCTV를 이용한 감시체제로 기지 곳곳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는 철저한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우리 헌병은 주기적으로 미군과 함께 기지 내·외곽 시설경계 근무에 동행하여, 미군의 작전 수행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미군 주관하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동맹군(일본, 호주, 쿠웨이트) 화력 시범을 통해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우수한 성능을 가진 그들의 중화기 사용법을 체험하며 전투 수행능력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이곳에서도 가끔 동맹군 전사자 추모행사가 거행된다. 군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다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그들에게 절로 고개를 숙이며, 이런 전쟁터에서 '이라크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평화, 재건 지원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 다이만 부대의 존재와 그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다.

믿음직한 신세대 헌병 병사들

다이만 부대에는 총 12명의 병사가 있다. 이들은 모두 헌병특기로, 주로 미군과 함께 기지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미군 병사들과 함께 근무하기에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속도가 빠른 우리 신세대 병사들이 혹시라도 한국의 정서에 맞지 않는 문화를 흡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우리 병사들과 함께 간단한 구보를 한 뒤 일종의 군기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들을 다잡아갔다. 하지만 이런 기우들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갔다. 아니, 오히려 더욱 병사들에게 믿음이 생겼다. 해외에 나오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맞는가보다. 미군과 함께 근무하며 틈틈이 영어실력을 늘리는 병사,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미군에게 정성껏 설명해주는 병사, 자신이 한 번 맡은 임무는 책임지고 완수하는 미군들의 업무 자세를 직접 체득하며,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우리 신세대 병사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훗날, 이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파병 6개월의 임무를 마치며...

지난 6개월 간, 이역만리 열사의 땅 쿠웨이트에 파병되어 근무하였던 시간들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의 시간이었다. 때론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고, 한국에서 늘 먹던 음식도 생각나 향수에 젖기도 하였지만, 대한민국의 공군 헌병 대표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파병 생활의 또 다른 기쁨이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동고동락해온 우리 헌병 병사들과 다이만 부대원 모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다이만 부대 수사계장으로 알차게 보낸 파병 6개월을 정리해본다. 평생 못 잊을 것이다. ☹



‘공군의 추억’

개그맨 전유성

‘아이디어뱅크’로 유명한 개그맨 전유성 씨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 울릉도 공군부대를 다녀왔다. 알고 보았더니 전유성 씨는 공군에 입대하려다 시력 때문에 입대를 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공군에 대한 추억’을 특별기고 해 주셨다.



공군기지 탐방



기지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나의 꿈은 공군

우연히 공군병사를 길에서 만나면 습관처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다.

“어이 공군! 몇 기야?”

느닷없이 던지는 질문에 바로 “네, ○○○기입니다.”하고 씩씩하게 대답해준다.

“뭐? ○○○기? 나는 152기 지원했다 떨어진 놈이야.”

그제야 그 병사는 하하! 웃고 만다. 정말이다. 나는 152기에 지원했다가 시력이 나빠서 떨어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공군이 되는 게 꿈이었다. 마찬가지로 내 밑으로 남동생이 4명이 있는데, 우리 형제는 무조건 공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공사생도 친척 아저씨

나는 1950년대 중반,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친척 아저씨 중에 공군사관생도가 있었다. 그 분이 부산에 내려오시면 늘 우리집에서 자고 가셨다. 어릴 때 보는 공사생도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우선 생도 복장이 폼났다.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즈음이었으니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의 복장은 어떤지 몰랐지만 공군이 멋있었다. 공사생도가 집안에 있다는 건 큰 자랑이었고 우리 집에 세 들었던 동네 청년들은 그 생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오곤 했다. 거기다가 그분은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해주니 덩달아 나까지 동네아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 분이 저녁이면 동네입구에 있는 평행봉에 거꾸로 매달려 땅을 향해 쪽 손을 내미는 모습은 정말 구경거리였고, 나를 무등이라도 태워주

는 날은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그 당시엔 동네 공터에 평행봉이 다 있었다. 동네 불량청소년들이 저녁 어스름해질 때쯤에 러닝바람으로 모여서 지나가는 처녀들에게 확확! 휘파람을 불어대던 풍경까지 눈에 선하다. 요즘말로 하면 그것이야말로 오락기구고 인터넷이고 채팅이었을거라!

“헌병 아저씨, 저 공군에 입대하게 해주면 안돼요?”

대학에 들어와서 ‘언제 군대를 갈 것이냐? 졸업하고 갈거냐, 재학 중에 갔다 올거냐’를 학우들과 토론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시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무조건 공군을 지원해야 한다고 우겼고 내 말이 먹힌 친구 둘과 함께 대방동에 가서 지원서를 썼다. 두 사람의 행운아는 공군에 입대를 했고 나는 시력 때문에 결국 떨어졌다. 하지만 공군에 가고픈 나의 마음을 그냥 거기서 꺾을 수는 없었다. 무작정 대전까지 내려가 입대시켜 달라고 우기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긴다.

3관구 앞 자유여인숙에서(이름이 진짜 ‘자유여인숙’이었는데는 자신 없다. 거의 40여 년 전 기억을 이 한번에 되돌려보려는 나의 어리석은 노력! 여인숙 이름이 뭐 중요하다고!) 며칠 동안 묵으며 기지 앞 초소에 근무하는 헌병에게 입대시켜 달라고 애원했던 일!

대전시내에 나갔다가 저녁에 길 잃은 아이들을 부모에게 데려다 주고 얻어먹었던 아이스케이트!

결국 5형제 중에 둘째만 공군에 합격해서 말년에 제대를 했고 나는 군대를 갔다오긴 했지만 어디를 다녀왔는지는 군사기밀(?)이다. 어쨌든 공군 지원 당시 무사히 입대한 행운아 친구가 제대를 한 후 자동차 보험회사에 다녔는데, 나는 그 친구에게 보험도 들었다.

인간의 꿈, 날개

원시시대부터 사람들은 날아가는 새를 보고 자신들도 날고 싶어했다. 솔하게 많은 ‘앞서나가던 원시인’들과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중세인들이 높은 곳으로 날아보려고 했다. 날개를 어깨에 붙이고 높은데 올라가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을 거다. 비행기를 만든답시고 재산 날려먹고, 실패하고, 쫓겨나고 한숨쉬기를 반복한 끝에 드디어 쇳덩어리가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쇳덩어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다닌다. 그리고 공군은 그 쇳덩어리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나도 이제 많이 컸다. 그래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공군병사들에게 ‘몇 기냐?’고 안 물어본다. 대신 군대에서 장교로 예편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본다. 공군 출신이라고 하면 “뭐? 공군? 나는 152기 지원했다 떨어진 사람입니다.”라고 한다.

잠깐이나마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전유성 씨가 공군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찰나를 즐기는 기쁨! 공군 출신들은 알라나 몰라! ☺



기지 내의 정원을 가꿀 때 쓰러져 꽃삽을 선물한 전유성 씨



2

1. 3월 28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제195기 공군부사관 후보생 임관식이 열렸다.
2. 현충원 환경 지킴이로 나선 공군 장병들. 공군은 월 2회에 걸쳐 체련시간을 활용, 서울과 대전 지역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3. 제5전술공수비행단은 부산 강서 및 경남 김해 소방서 공항공사 소방대와 합동으로 기지 내 P.O.L(유류저장 중대)에 가상 화재상황을 설정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민·관·군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4. 4월 1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대한민국 영화계의 거장이었던 신상옥 감독의 영결식이 열렸다. 이날 영결식에서 공군군악대는 신 감독의 대표작인 영화 '빨간마후라'(1964년)의 주제곡을 고인의 영전에 바쳤다.
5. 3월 29일, 부산 광안리 일대에서 펼쳐진 국가재난 대응 공군 긴급구조 훈련에서 HH-60 탐색구조헬기를 타고 출동한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구조사들이 낚시 중 조난당한 시민을 긴급히 구조하고 있다.





6

- 6. 4월 13일, 공군본부에서 「문화컨텐츠 산업과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심형래 감독
- 9. T-59 항공기 최초이자, 제16전투비행단 창단 이래 최초의 무결함비행지원 500회를 달성한 16비부대정비대대 유태근 원사(기고 9기). 비행을 마친 제216비행교육대대장 이강래 중령이 유 원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 10. 제10전투비행단은 4월 7일, 비행단 장병과 미 1-43방공포병대대원이 참가하는 '한미 영공수호 다짐 구보대회'를 실시했다.

9



10



7



7. 방공포병사령부는 4월 12일, 애인 없는 솔로 장병들을 위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커플 매니저 강혜림 씨를 초청, '애인 만들기 & 멋쟁이 군인되기 비법'을 주제로 이색 특강을 열었다.

8. 4월 14일, 블랙데이(Black day)를 맞아 자장면을 먹으며 군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들을 허심탄화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한 제3훈련비행단 수송대대 병사들

11. 4월 6일, 제19전투비행단 기지체육관에서 「'06년도 단장배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다.



8



11

“우리의 하늘은 우리 항공기로!”

KO-1 전술통제기

전투발전단 무기소요처 소령 임 중 택

■ 전술통제기의 임무 ■

저속통제기(지휘통제기)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전술통제기’는 고속으로 기동하며 작전 중인 전투기를 지휘, 통제함으로써 적의 지상목표를 공격하는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수행할 때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한다. 이동 차량이나 소규모 병력의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투기의 공격에 앞서 작전지역을 정찰해 표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전술통제기는 로켓 등으로 무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 지형 국가에서는 적 지상 병력에 대해 효과적인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KO-1 국산화의 의미 ■

KO-1(Korean Observation-1) 전술통제기는 공군이 1972년에 도입한 이후 30년 이상 운용하여 항공기로서의 수명을 거의 다한 O-2A 항공기의 도태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연구 개발한 항공기이다. KO-1은 KT-1을 기본형상으로 하여 외부장착물(무장 및 외부연료탱크) 및 무장제어장치, 개량된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여 전술통제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KO-1을 운용함으로써 공군은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한 작전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KT-1 기본 훈련기에 이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KO-1 전술통제기는 1999년 4월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 개발에 성공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2003년 3월부터 양산에 착수하여 2년 4개월 만인 2005년 7월 27일에 처음으로 양산 1호기가 출고되었다.

KO-1의 의의는 국내 독자 개발 항공기 최초로 무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항공기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항공기 무장계통 및 임무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포함한 항공전자 계통에 대한 독자적인 설계 및 시험평가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KT-1기가 국산 항공기 개발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었다면, KO-1기는 국내 과학 기술진의 보다 발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아 장차 우리 힘으로 F-16(+급)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특성 및 제원 ■

KO-1은 KT-1의 양쪽 날개 아래에 외부 장착물의

구 분	제 원
기 고	12.1ft(3.7m)
기 장	33.8ft(10.3m)
기 폭	34.9ft(10.6m)
최대 속도	350kts
실용 상승고도	38,000ft(11.58km)
최대 이륙중량	3,311kg

탑재가 가능토록 한 파일론(pylon ejector)과 50갤런 용량의 연료 탱크, 그리고 대지 공격을 위한 2.75인치 로켓(7발)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관(LAU-131과 gunpod)을 장착하고 있다. 또한, 위성·관성 항법장비(GPS-INS)용 안테나와 U·VHF·IFF 통합형 통신 안테나, 그리고 야간에 NVG를 착용한 조종사의 비행을 돕는 NVIS(Night Vision Imaging System : 야간 조명 계통)의 외부 등(燈)을 새롭게 부착했다.

내부 구조는 KT-1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졌는데, 전방계기반에는 유리판 같은 전방시현장치(HUD : Head-Up Display)와 항공기의 비행자세, 항법정보 등을 보여주는 다기능 시현기(MFD : Multi Function Display) 등이 추가됐을 뿐만 아니라 조종석 계기의 배열도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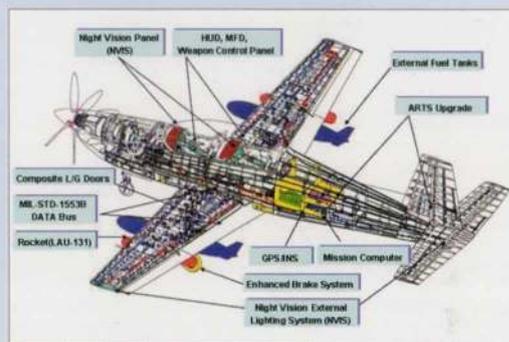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외부 연료탱크와 주익(主翼)의 내부 연료탱크를 연결하는 연료관, 로켓 발사관을 제어하는 전선 등이 주익에 장착됨으로써 내부 구조가 수정되었고, 항법과 무장 제어를 위한 항공 전자 컴퓨터(ASC : Avionics System Computer)와 위성·관성 항법장비 등이 후방 동체(胴體)에 추가로 탑재되어 있다. 따라서 KO-1은 KT-1의 단순한 성능 개량이 아닌, 'KT-1이 아닐로그 항공기라면 KO-1은 디지털 항공기'라고 할 정도로 새롭게 발전한 항공기이며, 특히 항공전자 분야는 F-16 전투기 급에 비견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전망

성능면으로 볼 때 동급 항공기인 스위스 필라투스사의 PC-9 계열 항공기와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EMB-312 계열 항공기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KO-1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과 수출협상을 벌여 항공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KT-1과 KO-1의 내부 계기반 비교



KO-1 설계도

이미 인정받았다.

KO-1을 통해 우리나라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로 조국 영공을 방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항공기의 개발이나 생산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할 뿐 아니라 KT-1 계열 항공기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되었다.

전술통제의 국산화 개발 성공은 21세기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할 것이다.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마약 단속 및 해안 경비를 위해 첨단 항공 전자 장비와 무장을 장착한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 기종에 비해 뛰어난 무장 시스템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한 KO-1기의 수출 전망은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잘 만든 우리의 항공기, 이젠 세계가 무대이다. ↓

덩커크 해안의 기적과 프랑스의 항복

군역사기록관리단 대위 김만식

연합군을 구출하라!

영국의 대륙과전군은 철수를 결정했지만, 그 진행 과정이 결코 순탄치 만은 않았다. 우선 가장 시급히 대두된 문제는 영국군을 비롯한 연합군을 실어올 수송 수단의 확보였다. 물론 막강한 대영 해군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당장에 동원할 수 있는 선박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해군성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선박들을 징발하여 도버 해안으로 집결하게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한시라도 빨리 사지(死地)에 고립되어 있는 영국군과 연합군을 구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안고 있던 영국 국민들은 해군성의 징발대상에서 제외된 소형어선과 모터보트를 자발적으로 끌고 나와 작은 힘이나마 돕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호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에 불타는 국민들은 덩커크를 향해 출항하는 수송선단의 뒤를 위협을 무릅쓰고 따라 나섰다.

철수작전명, 다이나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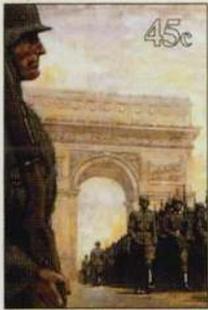
덩커크 해안에서 구원의 손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연합군 장병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실어오기 위해 용감하게 수송선단을 따라나선 이들이지만 덩커

크로 가는 길은 위험한 가시밭길과 같았다. 우선 철수작전(작전명은 '다이나모(dynamo)'로 결정되었다)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 해군은 선박과 등대에 엄격한 등화관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항법장비가 빈약한 민간 선박들은 오직 선도함의 유도에 의존해 칠후 같은 밤바다를 건너가야만 했고, 게다가 바다 곳곳에는 독일군의 본토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뿌려놓은 수많은 기뢰가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악조건을 이겨내고 우여곡절 끝에 수송선단이 덩커크 해안에 도착했다더라도 이들은 독일군을 상대해야만 했다. 해안에서 철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연합군 장병들과 바다에서 오밀조밀한 밀집대형을 이루고 있는 행동이 굼뜬 수송선단을 겨냥하여 독일 공군은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어렵사리 접안한 수송선들에서 철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슈투카 폭격기와 메시슈미트 전투기들이 끈질기게 나타나 전의를 상실하고 패주하는 연합군을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었다.

5월 27일 아침부터 시작된 해상철수는 6월 2일까지 1주일간 계속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13척의 구축함과 5척의 대형 수송함, 그리고 200여 척이 넘는 소형 선박이 독일 공군의 공격으로 격침되었다. 그럼에도 수송선단이 구출에

MARSHALL ISLANDS
Occupation of Paris 1940



파리를 점령한 독일군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장면을 어두운 톤으로 묘사한 우표 당시의 암울했던 파리의 상황을 잘 담아내고 있다.

성공한 연합군은 영국군 20여 만 명을 포함하여 무려 30여 만 명에 달하였다. 그나마도 이 정도의 병력이 철수에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 총통의 배려(?)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 공군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군의 철수를 도와 준(?) 히틀러 총통

덩커크 해안에서 불과 20km 후방까지 진출한 구데리안 장군(Guderian Heinz Wilhelm, 독일 전차부대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인물로 전격전 개념 정립에 큰 공헌을 함)의 제19기갑군단이 일방적인 연합군 사냥을 꿈꾸며 평음을 울리고 돌진하고 있던 그 순간에, 히틀러 총통은 이들에게 칭찬벽력 같은 지시를 내렸다. 내용인즉 '전차부대는 전진하지 말고 현 위치를 고수하라'는 것. 옆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몰려있는 연합군을 단 한번에 일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구데리안 장군은 직접 히틀러 총통을 설득하였으나, 계속된 승진보에 혹시나 하며 몸을 사리던 총통은 현장 지휘관의 간곡한 요청을 무시하고 말았다. 이같은 총통의 이해 못할 지시로 일생일대의 찬스를 어이없이 놓치게 된 독일군 전차부대 장병들은 실망과 좌절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하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된 수송선단과 철수병력은 그나마도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반면에 총통의 '현위치 고수'라는 지엄한 지시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독일군 제19기갑군단에 뒤늦게나마 공격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이미 배는 덩커크를 떠난 뒤였다.

파리 함락

덩커크 해안에서 연합군이 생사를 건 탈출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프랑스의 생명줄은 점점 짧아지고만 있었다. 잔존 프랑스군이 계속 저항을 펼치고 있었지만, 덩커크 철수로 힘의 균형이 급격히 기울어진 현실에서는 약간의 시간만 벌여줄 뿐 전세를 뒤집기는 불가능하였다. 계속되는 전투에서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연합군과는 달리 아주 경미한 피해만 입은 독일군은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프랑스의 목을 조여오는 전격전의 핵심인 전차부대가 버티고 있는 이상 파리의 함락 아니, 나아가 프랑스 전체의 함락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결국 덩커크 철수가 끝난 후 12일이 지난 시점인 1940년 6월 14일, 파리는 함락되었고 독일군의 신출귀몰한 전격전에 계속되는 패퇴로 일관한 프랑스 정부는 저항의지를 상실한 채 파리함락 3일 후인 6월 17일, 전격적으로 독일에 항복하고 말았다. 프랑스는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 영토의 2/3를 독일에게 넘겨주는 치욕을 당했고, 남부지역의 1/3만을 허울뿐인 비시 괴뢰정부가 통치하게 되었다.⚡



1. 민간에서 징발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참가한 소형 선박들이 연합군 장병들의 철수작전에 큰 힘을 보태었다.
2. 프랑스 전선에서 연합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구데리안 장군
3. 프랑스를 점령한 직후 히틀러 총통 일행이 에펠탑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한 사진



춘향전

군사법원 군판사 대위(진) 안 석

어릴 적 밤이면 밤마다 할머니께 들었던 우리의 전래동화. 그런데 동화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法으로 분석해 보면 어떨까? 재미난 동화와 함께 하는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법률. 이번호부터 만나보자.

“꽃다운 나이의 처녀 총각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 첫눈에 반해 좋아져 버리는 일이 많다. 조선시대 속 종 임금 때의 남원 고을 퇴물 기생 월매의 딸 성춘향과 새로 부임해 온 고을 부사의 아들 이몽룡 사이의 사랑 몸살도 바로 그 이팔청춘 꽃다운 나이의 처녀 총각이 첫눈에 반한 경우였다. 일이 그렇게 된 처음 사연을 보면 이랬다. 때는 한창 푸른 녹음이 어우러지기 시작한 음력 오월 오일 단오절…… (후략)”

『춘향가』 (이청준, 나영 지음) 중에서

의문1. 이몽룡과 성춘향은 현행법상 혼인할 수 있을까?

판소리 '춘향가'에 따르면 이몽룡과 성춘향은 생년월일이 같은 동갑내기로 임재(壬子)년 사월 초파일생.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당시 나이는 둘 다 이팔청춘, 만 16세 1월이었다. 현행 민법상 두 사람은 혼인이 가능할까?

성춘향은 혼인할 수 있지만 이몽룡은 혼인할 수 없다.

민법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흔히 '여자가 남자보다 정신연령이 더 높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현행법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한 때에 혼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807조). 만약 이러한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혼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며(민법 제813조),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호적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17조).

결국 현행 민법상, 춘향전에서 성춘향은 만 16세가 넘었으므로 혼인할 수 있지만, 이몽룡은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혼인할 수 없는 것.

한편, 조선시대의 최고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남자 15세, 여자 14세가 되면 혼인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일상생활에 관한 예법서인 『주자가례』에도 남자는 16세에서 30세, 여자는 14세에서 20세가 혼인 적령기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법령이나 관습에 의하면 성춘향과 이몽룡의 나이는 혼인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의문2. 수청들기를 강요한 변 사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판소리 '춘향가'에 따르면 변 사또는 남원 고을에 신입사또로 부임하면서 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도록 하나, 춘향이 이를 거절하므로 곤장을 쳐서 옥에 가두게 한다. 변 사또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어떠한 죄에 해당할까?

변 사또는 강요죄, 불법체포감금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벌된다. 그리고 변 사또는 성명, 직업 등의 신상이 범죄 사실의 요지와 함께 공개될 수 있다.

강요죄

변 사또는 춘향을 폭행·협박하여 법률상 아무런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인 '수청들기'를 강요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하나, 춘향이 수청들기를 거절하여 변 사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강요미수죄(형법 제324조의5)가 성립한다. 그리고 만약 변 사또가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강요죄를 범하였다면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123조). 춘향은 관기 월매의 딸이므로 조선시대 당시의 종모법(從母法)에 따르면 그녀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과 따라 자연히 관기가 된다. 춘향이 관기라면 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터. '춘향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춘향이 '대비정속(代婢定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비정속이란, 춘향 대신 다른 여종을 관기로 보내고 자신은 관기로서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춘향은 관기가 아니어서 지방의 수령인 사또의 수청을 들 의무가 없었을 것이다.

불법체포감금죄

변 사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 하였으므로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124조). 조선시대에는 행정과 사법이 엄격히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고 하여 경국대전 등에 명시하였고, 지방의 수령(守令)은 장형(杖刑) 이하의 사건만을 처리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만약 변 사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인 춘향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할 의도였다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제10조 제4항)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징역(간음) 내지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추행)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물론 변 사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미수범(같은 조 제5항)으로 경우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관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변 사또의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범죄사실과 함께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 이달의 법언 -

법의 부지(不知)는 용서되지 아니한다.

(Ignorantia legis neminem excusat, 로마 법언)

- 법률상담 안내 -

☞ 전화상담 : (군) 920-6404, (02) 506-6404

☞ 인터넷 : 공군본부 법무실 홈페이지 「법률지원」

☞ 인 터 넷 :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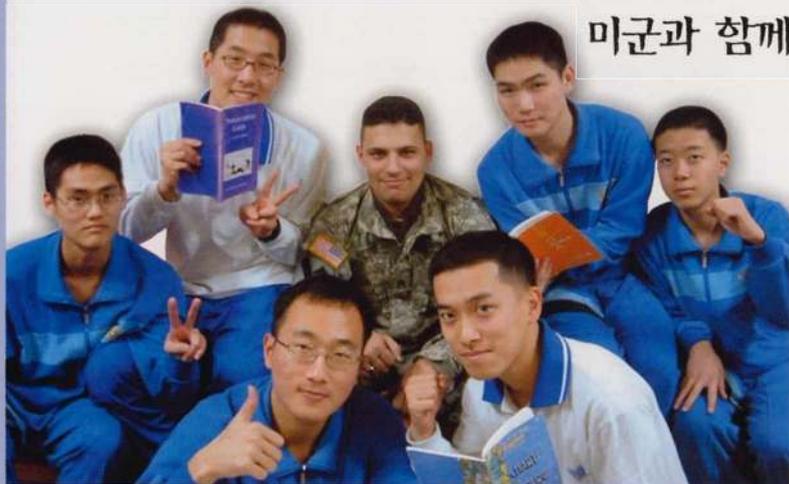


미군과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회화~

방공포병사령부 영어동아리

Confidence!

방공포병사령부 중위 장 동 하



Can you Speak English?

방공포병사령부에는 아주 특별한 동아리가 있다. 바로 영어회화 동아리인 'Confidence!' 영어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외국어의 장벽을 뛰어 넘어 보고자 지어진 이름이다.

영어가 거의 '세계공용어'가 되면서 장병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의욕도 끝없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Confidence!'는 같은 기지 안에 미군이 함께 주둔하고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 미군의 도움과 동아리원들의 열정으로 'Confidence!'는 '100% 영어로'만 운영되고 있다.

'Confidence!'의 선생님은 미군 하사(Staff Sergeant) Reyen(29세). 그는 동아리의 일원인 동시에 선장이다. 매주 수요일, 90분간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의 알찬 수업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흘러 항상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을 기약해야 할 만큼 재미나고 즐겁다.

지난해 9월, 마음 맞는 3명의 단출한 구성원으로 시작된 'Confidence!'는 친절한 영어강사와 흥미로운 수업진행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고정멤버만 16명에 이르게 되었다. 동아리에 참여하는 장병들의

호응도는 높아만 가고 이제 분반을 해야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란다^^

어색함을 넘어... 실력은 쑥쑥~

첫날, 원어민 회화강사를 간절히도 원하던 동아리원 앞에 드디어 나타난 Reyen 하사. 시끌시끌하던 동아리방이 숙연할 정도로 적막하기만 한데... 주뻗 주뻗 말 붙이기도 애매하고... 강사도 동아리원도 눈만 멀뻗멀뻗. '아 이 애매모호한 어색함이란...' 서투르지만 손짓 발짓 섞어가며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눈빛으로는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싹튼 그들의 우정. 영어실력은 실력대로 쑥쑥~ 기분은 룰루랄라다.

동아리 덕분에 영어랑 친해졌어요

동아리는 진행 방식 또한 색다르다. 일단, 서로의 특징을 살린 닉네임은 기본. 회화에 중점을 둔 교재를 바탕으로 그 날의 'Topic'이 정해지고, 이야기들이 오간다. 어떤 이야기든 좋다. 문법이 좀 틀리면 어땠고, 단어가 좀 짧으면 어때서? 지금 내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뿐. 자신감도 큰 무기다. 일단,



말문이 트이니, 부끄러움이나 부담감도 봄 눈 녹듯 사라르~ 사라진지 오래. 함께 웃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영어실력과 함께 우정도 쌓여가고 있다.

동아리가 재미를 더해가는 데에는 미군 강사 Reyen의 재치만점 강의가 큰 몫을 차지한다. 동아리를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꾸려가고 있는 그는 어느 날은 뜬금없이 그림동화책을 들고 와서는 배역을 정한다. 넌 호랑이, 넌 달님, 넌 소나무... 초등학교 학예회 때나 했을까? 기억도 까마득한 역할극을 영어로 하게 만들고야 만다. 물론 그 수준이야 미국 초등학교 어린이 수준도 안되지만, 띄엄띄엄 대사를 읊어대는 병사들의 불이 어느새 발그레하다.

가끔 휴식이 필요한 시간. 동아리원들을 위해 무삭제 원판 DVD를 준비하는 센스! 물론 대사도 자막도 영어인 이유로... 처음엔 화면(그림)만 뜯어지게 응시했던 동아리원들이지만... 어느새 귀가 트이고, 영어자막을 읽어 내리는 눈도 빨라져 오로지 영어만으로 영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미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원본으로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은 문화번역까지 그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배우려는 의욕과 가르치는 보람

이렇게 방포사 영어회화동아리 'Confidence!' 는 미군 강사의 열정과 동아리원들의 의욕으로 90분간 꼼꼼하고 흥미롭게 진행된다. Reyen 하사는 가르치는 보람과 함께 한국과 한국문화를 배우는 즐거움도 만끽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데...

서로 다른 언어를 가르치고 배워가면서 동아리는 웃음꽃 만발이다.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송호근 일병(22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다녔던 사설 회화학원보다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한 것 같다."며, 군에서 영어회화를 원어민에게 직접 배우고 있다고 말하면, 다른 곳에서 군복무 중인 친구들이 놀라고 부러워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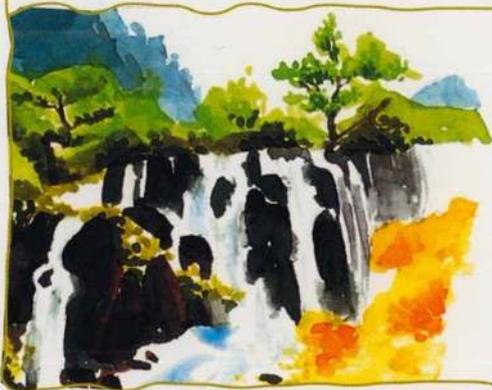
배우려는 의욕과 가르치는 보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탐구하고 나아가며 결국 하나라는 일체감에 마음 흐뭇해지는 우리의 동아리 'Confidence!' 는 배움의 시간을 넘어 한미 양국간 화합의 장(場)이 되고 있다. 영어에 관심 있고 영어실력의 놀랄만한 향상을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황제가 될 사주팔자

구성 : 김영실
그림 : 김영은

중국이 5대 10국의 혼란을 겪던 때, 오(吳)나라에
옹하기로 소문난 조광윤이란 점술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사주로 운세를 점 쳐보니 20년 후
황제가 되리라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신이 난 조광윤은 즉시 모든 가산을 정리하여
경치 좋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황제가 될 상상 속에서 태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주(周)나라에도 조광윤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또한 점술가로부터 황제가 될 사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군대에 들어가 여러 전투에 참가하며 황제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갔습니다.



20년 후 예언의 그 날, 점술가 조광윤은 아침부터 자신을 모시러 올 수레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초조해진 그는 마을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점술가는 당황하며 새 황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점술가 조광윤과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똑같은 주나라 출신의 송(宋)태조 조광윤이었습니다.



점술가 조광윤과 송태조 조광윤의 20년 세월은 '노력한 사람만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제를 만든 것은 '사주팔자가 아니라 '성실한 노력'이었습니다.

또 다른 낯설

여행을 꿈꾸며...

- 토리노에서 보낸 마지막 밤 -

객원기자 김기현

작은 것은 아름답다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기차는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여 산 속을 달리고 있다. 5월에도 흰 눈으로 덮인 곳이 쉽게 눈에 띄는 알프스. 니스에서 토리노로 넘어 오는 기차는 2개의 객차만이 연결된 작은 간이 기차였다.

2개의 객차에 10명도 안 되는 여행객이 나눠 타고 산 속 마을을 지나가며 또 국경을 넘는다. 강원도 산골짜기 어느 마을에 여행 온 것 같다. 이제까지 만난 여행객들과는 다르다. 산골 마을 할머니들이 중간에 탔다가 짐을 들고 또 내린다. 할머니들은 어디나 똑 같다. 친절하게 먼저 아는 척을 하고, 가지고 있는 쿠키를 꺼내 건네 주신다. 강원도 할머니라면 떡이나 옥수수를 주셨겠지. 내리기 전에는 가는 곳까지 잘 가라는 인사도 빼놓지 않으시는 정겨운 시골 할머니들... 승무원들도 여유가 있다. 몇 명 되지 않는 승객이니까 한 명 한 명 어디까지 가는지 물어 보고 옆에 앉아 짧게나마 살아가는 이야기도 한다. 나에게도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

2칸의 기차, 열 명의 여행객, 작은 간이역. 작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다. 작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다. "작은 것은 아름답다" 혼자 중얼거리며 웃어 본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간이역이 계속 나타난다. 해질 무렵, 창 너머로 작은 마을이 풍경처럼 흘러간다.

▲ 토리노 국립영화박물관 외관



▲ 이름도 귀여운 '리모네' 간이역



▲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동화속 한 페이지 같다.



▲ 영화박물관의 내부. 고속엘리베이터를 타고 침탑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쿠키같은 도시, 토리노

이탈리아의 '토리노'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대개 잘 알지 못한다. 자동차 마니아라면, 또 유럽 축구팬 이라면 적어도 몇 번 들어본 도시일 테고 지난 2월 쇼트트랙 경기에 열광한 그대라면 곧바로 기억할 것이다. 올해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고, 피아트 자동차 공장이 있어 모터쇼로 유명하며,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의 연고 도시다.

주로 가까이 있는 큰 도시 밀라노를 들리고 토리노는 건너뛰기 쉽다. 나를 초대한 친구가 토리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했기에 감사하게도 작은 과자 같은 도시, 토리노를 맛볼 수 있었다.

도심 가운데 아주 높은 침탑이 있는 건물이 피렌체의 두오모처럼 토리노 곳곳에서 보인다. 그 침탑에 올라가면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유럽에서 제일 큰 영화박물관, 토리노 국립영화박물관이다. 얼마 전 이 곳에서 김기덕 감독의 회고전을 했다고 한다. 오래된 건물을 아주 매력적으로 리모델링 해두어 침탑 꼭대기까지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다.

토리노 전체가 적절한 높이에서 내려다보인다. 안 내책자에서 공업도시라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상했던 모양과는 달랐다. 베로나, 피렌체와 마찬가지로 토리노도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

시였다. 어떻게 표현하지? 적당한 크기의 쿠키 같은 도시가 적당하지 않을런지. 예쁜 케이크와는 다른, 조금 못생긴, 하지만 맛있는 쿠키 같은 도시.

무계획 속의 자유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재미난 거리를 발견하면 멈추어 사진도 찍고, 자전거를 세워두고 한쪽 길에 서서 훌쩍훌쩍 술을 마시고 있는 아저씨가 보이면 몰래 한 컷, 두 컷 찍어 본다.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온다. 그 아이들의 몸짓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행복해진다. 이탈리아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이제 40시간 정도 남았다. 싸고 맛있는 커피를 한 잔이라도 더 마셔야 한다.

길가의 여유로운 카페에 자리를 잡고 동네 처자들의 수다스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빠른 이탈리아어로 말하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애써 엿듣는다.

여자애들의 표정으로 보아 아마 짝사랑하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하다고 단정지어 버린다. 거리에 스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스케치하듯 기억에 담는다. 햇살과 바람과 여유도 저장해둔다. 지칠 때 언제라도 꺼내어 쓸 수 있을 만큼.



▲ 토리노 거리의 풍경. 그들의 밝은 모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 영화박물관에서 내려다 본 토리노 거리

▲ 토리노의 꽃집

최후의 만찬을 즐기다

이탈리아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느릿느릿 찾아온다. 다음 날 오후면 밀라노에서 서울로 떠나야 한다. 마지막 하루는 마음대로 지내기로 하고 아예 안내책자도 지도도 없이 지갑만 들고 나왔다. 밀라노 행 기차표도 사두었으니 공항 갈 버스 차비 정도만 남겨두면 남은 유로를 탕진해도 된다. 점점 배가 고파온다. 아무 곳이나 들어 갈 수는 없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유명한 식당이라도 알아서 나올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토리노 대학 주변을 뒤져보고 방송국 주변을 걸으며 갈만한 곳을 찾는다. 큰길로 나가기 위해 골목길을 지나가다 와인바 하나를 발견했다. 와인을 마시면

음식은 계속 공짜라는 글을 읽고 곧바로 들어간다. 와인의 지방, 피에몬테에서 맘껏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접시를 들고 바에 놓인 여러 종류의 음식을 부담 없이 맛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와인 속에서 어떤 걸 마실까 계속 고민한다. 아마 난 몇 년이 지나 이번 여행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도 이탈리아에서 먹은 커피와 음식과 와인은 맛으로 기억할 것 같다. 두 명의 남자가 너무나 신나게 요리를 하고 와인을 골라주는 '니콜라스네'는 그 중 최고다. 우연히 발견한, 이 가게의 만찬을 내 편견으로 이탈리아 '최고의 저녁'으로 선정한다.

옆에 앉은 녀석은 자전거 가게에서 일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한다. 같이 와인을 마시다가 자기 자전거 자랑을 한다. 결국 가게 앞에 주차해 놓은 그 친구의 자전거를 보러 나갔다. 타보라고 권유하기에 망설이지 않고 음주 운전을 강행한다. 자전거 위에서 저녁에서 밤으로 변해 가는 시간을 느껴본다.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여기 저기서 고향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TV 축구중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고향소리다. 그렇게 몇 번 웅성거리다가 경기가 끝난 휘슬 소리가 들린다. 갑자기 축구팬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토리노의 축구팀 유벤투스의 시즌 우승이 결정된 순간이었다. 2002년 한국 거리의 붉은 악마들처럼 조용하던 시내가 온통 축구팬들로 넘



▲ 와인바 '니콜라스네'



▲ 토리노 거리의 풍경



▲ 조명이 매력적인 영화박물관 안의 카페

치기 시작한다.

그들이 응원하는 유벤투스는 그들의 종교와 같아 보인다. 유벤투스를 알고 있다고 하자 바로 공짜 술이 날아온다. 나도 그 무리에 휩싸인다. 적당히 취했고 여차피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버스는 다닐 수 없어 숙소까지 걸어가야 했다. 그들과 함께 거리를 걷기 시작한다. 빨간 유니폼을 입고 소리지르는 그들만큼 신나지 않지만 나도 플래그 하나를 사서 흔들며 "유벤투"를 외친다. 밤새 미친 듯 열광하는 축구팬 속에서 나도 광팬이 되어버린다.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소리지르며 한밤중 도시를 누비는 것도 해볼 만하다. 이탈리아에서의 마지막 밤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다. 열광의 밤도 지나간다.

신나는 여행을 위한 정답은 없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밀라노에서 잠시 거리를 둘러보고 공항으로 향했다. 봄날의 꿈 같은 여행이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보낸 시간이 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상영된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한 3가지 법칙이 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법칙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W. 서머셋 모옴이 한 말이다. 그의 말을 따라 나도 한 마디 해본다. "신나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3가지 법칙이 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법칙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답은 없다. 당신이 만들어 가

는 당신만의 여행이 존재할 뿐.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의미 있을 뿐이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준비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함께 갈 친구도 필요하고, MP3 플레이어도 필요하고, 껌은 디카도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곳이라도 그냥 부딪혀 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여행이야 언제라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고생이 곧 찾아오고 배고픔이 이내 습격한다는 게 조금 두렵긴 하지만.

내 젊음의 어느 봄날,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 서울 서교동의 작은 방,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도 나는 낯선 여행을 꿈꾼다. 또 다른 낯선 곳으로의 방랑을 꿈꾼다. 그 언제, 어디서라도. ☺



▲ 토리노 거리의 풍경. 나는 또 다시 낯선 곳으로의 방랑을 꿈꾼다.



아름다운 영어 베스트 10

외화번역가 이 미 도
(이미도의 등 푸른 활어영어) 지은이

영어단어에도 점수가 있다?!

영어단어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1점에서부터 26점까지 지정하곤 아무 영어단어로나 점수를 매겨보면 Attitude가 100점이 됩니다. 누가 맨 처음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냈는지 참 놀랍고 신기해요. 100점 받은 단어니까 Attitude를 '완벽한 단어'라고 불러도 무방(?)할텐데, Attitude의 뜻을 되새겨보면 완벽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운 단어'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 Attitude와 부정적 Attitude

Attitude가 100점을 받았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봐요. 우리는 Attitude의 뜻을 '태도'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Attitude에는 그밖에도 '의견, 생각, 느낌, 마음자세' 등의 좋은 뜻이 들어있거든요. 삶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positive attitude to life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반면에 삶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negative attitude to life를 가진 사람이겠지요. 결국 인간은 어떤 Attitude를 갖고 사는가에 따라 아름다운 삶을 리드하기도 하고 어둡거나 그늘진 삶으로 전락하기도 하지요.

1위는 어머니(mother)

2005년에 영국문화협회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사람들은 어떤 영어단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102개의 비영어권 국가에서 4만여 명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 베스트 70을 고르도록 한 결과, 1위에 어머니(mother)가 뽑혔더군요. 영국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이 정부기구가 창설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조사한 결과라는데요, 70개의 영어단어 가운데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인 어머니가 1위에 뽑힌 거지요.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하느님처럼 소중한 존재, 어머니

아름다운 영어 베스트 10은 mother(어머니), passion(열정), smile(미소), love(사랑), eternity(영원), fantastic(환상적인), destiny(운명), freedom(자유), liberty(자유), tranquility(평온함)의 순입니다. 만약 저더러 이 베스트 10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3개만 고르라면 저는 mother, smile, love를 꼽겠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에게 다 손과 발이 돼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창조했다고 하지요. 그만큼 어머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지요. 그렇기에 영어권 사람들은 'Mother is the name of God on the lips of children.'이라는 말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린이에게 어머니는 하느님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뜻일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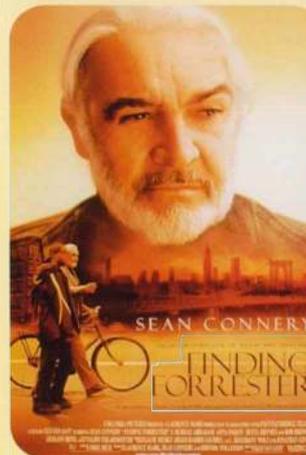
두 사람 사이를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것

어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떠오르지요. 그런 어머니의 미소처럼 아름다운 미소가 있습니다. <굿 윌 헌팅 Good Will Hunting>에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겪어야 했던 청년(윌 헌팅)은 오랜 시련 끝에 삶의 자세를 바꾸고는 자신에게는 물론 세상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로 결심하지요. 그를 긍정적인 삶으로 이끌어준 노 교수와 윌 헌팅이 나누는 눈부신 미소와 <파인딩 포레스터 Finding Forrester>에서 수십 년 동안 은둔한 채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닫힌 삶을 살던 노작가 포레스터가 자기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이웃 흑인 청년 자말에게 지어 보이는 환한 미소는 아름답기 그지없지요. 그들의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들도 물론 영화에는 많겠지만 영어에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two people is a smil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건 미소'라는 뜻이지요. 이 영어 표현은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two points is a straight line.' 즉, '두 점을 이어주는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이다'를 패러디 한 말입니다. 패러디도 이 정도면 아름다운 창작에 가깝다고 해야겠지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는 사랑

닫혀있는 문 앞에서 서성거리느라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는 게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릴 열려있는 문으로 이끄는 마스터키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 즉 'Love is the master key which opens the gates of happiness.'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랑이 아무리 위대한 마스터키라 할지라도 쓰지 않으면 녹슬기 마련이고, 각자의 차이를 인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그 사랑은 결코 영원할 수 없겠지요. 'Tolerance and celebr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s the fire that fuels lasting love.'라는 영어 명언처럼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사랑의 불씨가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하는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영어단어 베스트 10을 순서와 상관없이 기억하려면 이렇게 암기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까지(from here to eternity) 매혹적인(fantastic) 열정(passion)과 미소(smile)로 사랑(love)해주시며, 자식의 운명(destiny)을 평온함(tranquility)이 가득한 자유(freedom, liberty)로 인도해주시는 분은 바로 위대한 어머니(mother)입니다." ♣



행복 추구권

방송작가 모은 설

행복추구권 [幸福追求權]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우리의 권리, 행복추구권 (幸福追求權).

그러나 요즘 들어 이 행복추구권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고 싶은 것, 개성을 살려서 살고 싶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신문과 뉴스에는 사건과 사고, 우울한 기사가 넘쳐난다.

행복하길 바라며 집착했다가 더 불행해지는 삶. 무지개 저 너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 사람들의 욕심이었을까?

파랑새는 애초에 우리 곁에 없었던 게 아닐까?

때마침 요즘 하버드대학의 최고 인기 강의가 '행복학'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엄청난 과제물과 시험에 시달리는 하버드생들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그의 강의는 "행복

하고 건강한 삶의 비결은 책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이 요체다. 그래서 명상이 곧 수업인가 하면 '8시간 이상 수면'이 과제물이기도 하다고 한다.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수록 아날로그적 행복이라는 화두가 더욱 부각되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추구권의 정의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의 아닌, 자아만족 즉,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이 강조된다.

우리는 오래 남의 눈을 의식하는 데 익숙해왔다. 내가 좋은 것보다 남이 보기 좋은지, 나는 괜찮은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문제에 적지 않게 신경쓰며 살아온 시간을 따지면 아마 은근히 억울해질지도 모른다. 지내놓고 보면 별 거 아니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 상식을 버리는 일이 아니거든 자신의 가치관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이 다음에 어떤 자리에 서든 자기 자신에 대해 당당하고 대견한 마음이 들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끝끝내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즐거움과 열정이 생기는지, 무엇을 잘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때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지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의 기질인데도, 내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는데도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일상에 묻혀서 어린시절, 혹은 청년시절에 가졌던 그 소중한 순수한 꿈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꿈공이 생각해 볼 일이다. 잠시 잊었지만 여전히 해야 할, 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하다면 좋다. 그러나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서서 시들한 일

상에 내 몸을 맡기고 있다면, 아직 살아가야 할 삶이 살아온 삶보다 더 많은 이 시간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접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의식을 밀쳐두고 나의 관심과 열정의 소리에 귀기울여보자. 그것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는 행복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첫발이 아닐까?

링컨의 말처럼,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정도만큼 행복해진다.

우린 이런 저런 이유로 행복에서 너무 멀리 떠나왔다.

우리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었다.

이제는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다.

우리.

이제.

행복하자. ☺



잠 못 이루는 그대에게...

제3방공포병여단 군의관 대위 강지호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불안과 긴장에 잠 못 들던 기억, 부푼 기대를 안고 떠난 여행지에서 바뀐 환경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여행을 망쳤던 기억, 옆에서 자는 사람의 숨넘어갈 것 같은 코골이 때문에 밤새 뒤척였던 기억...

누구나 밤을 하얗게 지새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매우 흔하지만, 쉽게 치료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재발하며, 잠을 못 자는 것 자체로도 불편하지만, 큰 의학적 문제와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병, 불·면·증. 물론 불면증이 불치의 병은 아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두 다리 쪽 뻗고 편히 자 보자.



불면증이란?

불면증이란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잠이 들었다가도 쉽게 깨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피로감, 무력감, 집중력의 감소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개는 심한 스트레스나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 또는 수면주기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여 단기간 지속되다가 원인이 제거되기도 하지만, 만성적으로 진행하여 오랫동안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어 결국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불면증의 원인과 치료

불면증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돌아해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가고 나오도록 한다.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한다. 단, 잠자리에 들기 전 4시간 이내에는 운동을 삼간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가 고프면 가벼운 간식을 먹는다. 물론 많은 음식은 금물. 침대에서는 잠만 잔다. TV금지, 독서금지, 전화금지, 간식금지.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다. 저녁 무렵에는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카페인이나 니코틴, 알코올의 섭취를 피한다.

**반드시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자**

잠을 못 이룰까봐 지나치게 걱정하고, 잠들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 생각 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결국 밖이 환해질 때까지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생리적, 감정적 각성 정도가 밤에는 물론 낮에도 높다는 관찰 결과가 있다. 명상이나 심호흡운동 등을 통해 평소의 각성 정도를 낮추는 훈련을 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신체적 각성 정도를 저하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잠이 못 들 것에 대한 걱정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한다.

심하게 코를 곤다...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자신은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자신의 코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한다. 스스로도 잔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왠지 몸이 찌뿌드드하고 개운하지 못하다. 이런 경우를 '수면 무호흡증'이라 한다.

증상이 경한 경우는 잘 때 되도록 옆으로 누워서 자도록 하고, 체중조절을 한다.

심한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올빼미형의 치료



아무리 자려고 해도 초저녁에는 잠이 오지 않고, 집중력도 밤에 높아지는 것 같아 주로 밤에 공부한 나. 밤에 늦게 자다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나... 지각을 도맡아

했던 나.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는 것.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 없으니 내 자신이 변하는 수밖에... 강한 빛을 피어줌으로써 몸 안의 생리주기를 변경시키는 방법도 있고, 전체 수면 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수면 습관이 바람직한 주기에

도착할 때까지 취침 시각과 기상 시각을 점진적으로 매일 2시간 정도씩 연기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일단 수면 습관이 제자리를 찾은 후에는 엄격하게 지켜 나간다.

교대근무를 해야 한다

직장이 3교대인 경우, 어쩔 수 없이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근무시간이 자주 바뀌다 보니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는 졸리고, 자야 할 시간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

가장 바람직한 근무표는 '낮번-저녁번-밤번-휴일'의 순서로 짜는 것. 만약 야간 교대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일을 마치고 곧바로 아침 잠을 자지 말고 오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

약물치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작용시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단기간 쓰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수면제는 절대 장기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잠 못드는 밤이 벌써부터 두려운 그대! 하루 빨리 불면증을 극복하길... 매일 매일 힘차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 나라의 착한 공군인이 되기를 바란다. Ⓡ





방공무기 통제사, 하늘을 날다!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대위 이준희

“야! 너도 비행기 타냐?”

친구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공군이라고 모두 비행기를 타야 하나?’ 참으로 단순하다. 이럴 때 대답은 둘 중 하나다. 내 본업인 ‘방공무기 통제사’에 대한 장황한 설명, 또는 침묵…

어느 날, 드디어 나에게도 친구들에게 할 말이 생겼다. 비 공중 근무자 비행탐승 계획이 나온 것. 공중에서 조종사가 어떤 상황에 처하며, 이때 통제사의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연구해 보라면서 대대장님을 비롯한 비행교관들이 내가 선발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었다. 방공무기 통제사로서, 또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교관으로서 조종사의 비행 환경을 이해하고 보다 현장감 넘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다. 부담감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다.

비행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항공생리 훈련부터 비행까지 딱 11일이 걸렸다. 항공생리 이후 1주일의 시간이 있었지만, 나에게 이 1주일도 심적 준비를 하기엔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걱정은 나태한 자의 사치이다!’

통제사에게 29전대는 악명이 높다. 가장 까다롭고, 가장 실전적이며, 가장 복잡한 임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소 겁이 났다. 비행교관들은 한 술 더 떴다. 비행교육을 받던 시절 다른 사람들의 무용담을

들려준다. 비닐봉지 두 개를 꽉 채워왔다는 등, 비행 중 정신을 잃었다는 등. 나는 점점 걱정만 쌓여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질문에 비행교관들의 답변은 똑같았다. “잘 하면 돼!” 그렇다. 세상에 별 거 없다. 잘 하면 된다. 걱정은 나태한 자의 사치이다. 걱정을 하고 있을 시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러 대대를 휘젓고 다녔다. 놀리기만 하던 우리 비행교관님들이 드디어 진지하게 답을 가르쳐 주신다. Cockpit내 장치들에 대한 설명, 레이더 보는 법, 비상 탈출법 같은 기본적인 교육도 받았다.

드디어… 그 날이 왔다

비행 당일, 나는 전술무기 교관과정 입과자들의 공격편대군 훈련에 참가한 가상적기 임무 항공기 중 넘버 2의 후방석에 탑승했다. 기종은 KF-16D. 우선 가상적기 편대의 임무 전 브리핑에 참석했다.

항상 아쉬운 것이 이런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통제사는 사전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임무 계획 단계의 의도를 모른 채 전화통화 내용만으로 임무를 통제하는 것은 종종 시행착오를 낳는다. 그래서 중요 임무 시 조종사들은 ‘정통급’ 통제사를 찾는다. 경험 많은 통제사는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브리핑이 끝나고, 비행장구를 준비했다. 비행장구는 개인 지급되어 다들 자신의 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장구반 요원과 함께 비행교관들의 장구 중 몸에 맞는 것을 여기저기서 골라내어 겨우 한 세트를 장만했다. 임무지역이 해상이므로 방수복을 입고 장구를 착용했다. 장구에는 항공기와 연결하는 고리, 호스 같은 것들이 달려있는데, 탑승해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항공기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느낌이다.

항공기로 이동, 전방석에서 고생해 주신 류강원 소령님이 외부 점검을 하는 동안 먼저 탑승해서 이륙 준비를 했다. 몸을 항공기에 조립(?)하고 내게 필요한 장비들을 세팅했다. 혹시나 싶어 정비사들과 류 소령님이 두 번, 세 번 확인해 주셨다.

이제 출발이다!

콧가엔 류 소령님의 항공기 상태를 체크하는 주문 소리와 타워의 교신소리가 웅웅거린다. 우리 전투기가 활주로에 섰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다. '똥다' 류 소령님의 Call과 함께 활주가 시작됐다. 엄청난 힘이다. 약간 당황하고 있는데 기체가 사뿐히 떠올랐다. 이제 내려가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어렵었다.

전투기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민간 항공기를 탔을 때와는 또 다르다. 민항기는 좁은 창을 통해 힘들게 봐야 하지만, 전투기는 가만히 있어도 다 보인다. 마치 몸이 공중에 홀로 떠있는 듯한 느낌일까? 주위 경치에 심취해갈 무렵, 류 소령님이 정신을 깨워주신다. 돈다. 세상이 도는 걸까? 내가 도는 걸까? 참 잘도 돈다.



비행 전, 꼼꼼히 점검해 주시는 류 소령님

드디어 적군이 몰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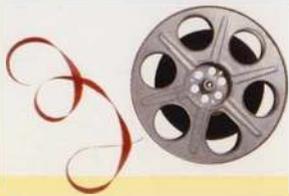
1호기와 2호기는 각기 분리하여 공격을 시도한다. 우리는 그들을 저지해야 한다. 레이더로 포착, Lock-On하고 이제 요격을 시도한다. 귀에선 통제사의 정보가 흘러나온다. '내가 할 때도 이렇게 들리겠지?' 그런데 레이더 화면을 보니 뭔가 분주하다. KF-16 정도되면 눈에 띄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 개의 포착물 중에 조작을 통해 거르고 걸러서 통제사의 정보와 일치하는 포착물을 선택해야 했다. 급하다고 부정확한 정보를 여러 번 주는 것은 귀를 시끄럽게 할 뿐이며, 조종사는 정확한 한 번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또한 'G'가 걸리면 통제사의 말은 더욱 들리지 않았다. 전시가 되면 Jamming도 있을 텐데...

기지로 돌아오는 길, 주위 경치를 구경하다보니 저 멀리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다. 그 넓고 넓은 활주로가 젓가락만 하다. '저기 어떻게 내리지?' 허나 우리 류 소령님은 그 젓가락 한 가운데에 정확히 착륙하셨다.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릴 때쯤, Runway Control에 나가 있던 비행교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대위, 비행 재미있었나?'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예!! 재미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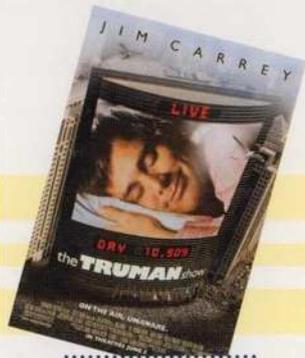
百聞이 不如一見

조종사들에게 듣는 이야기보다 내가 한 번 겪어보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됐다. 29전대 교관으로 있는 동안 조종사와 통제사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할 일이 참 많아졌다. 그리고 언젠가 29전대를 떠나 통제기구에서 임무를 하게 된다면 오늘의 경험을 매 순간 떠올릴 것이다. 전투기! 또 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영화 '트루먼 쇼'를 보고



제38전투비행전대 이병 이정덕

요즘 한 방송사에서 예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름 아닌 이경규의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는 예전에 모방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날 정도로 파급효과가 컸었다. 만약 내가 이 몰래 카메라의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 내가 행동하는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면...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사는 트루먼은 출근길에 자동차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그가 가는 길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쫓아오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 말이다). 그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진다. 자세히 보니, 이런! 조명등이다! 하늘에서 조명등이 떨어지다니... 그 이후부터, 트루먼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죽었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오고,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들이 느껴지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끼게 되는 트루먼은 첫사랑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된다. 바로 자신이 무언가에 찍히고 있고, 자신은 광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 드디어 삶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트루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섬을 떠나려 하고, 그의 앞에 이런 행동을 막으려는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한적했던 도로가 갑자기

막히고, 난데없이 핵 누출사고가 벌어지고...

그는 드디어 깨닫게 된다. 자신의 삶을 누군가 지켜 보고 있고, 그는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 사실을 안 트루먼은 프로그램 스태프들을 속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를 향해 간다. 자신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트루먼 쇼 PD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거짓된 삶을 버리고 나아가게 된다. 작은 보트 위에서 온갖 폭풍우를 다 이겨낸 그는 갑자기 무언가에 '쿵' 하고 부딪히게 된다. 바로 자신을 찍는 '트루먼 쇼' 세트장의 마지막에 다다른 것. 세트장의 문에 다다른 순간, 자신을 그 긴 세월 세트장에 가둬 두었던 PD와 대면하는 트루먼. PD는 자신이 만든 이 완벽한 세계에서 살라고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만, 그는 결국 세트장의 문을 박차고 나선다. 그 때의 통쾌함이란! 트루먼은 결국 완벽한 조건의 거짓된 삶보다는 자신의 진짜 삶을 선택한다.

가끔씩, 혹시 나도 트루먼처럼 몰래 카메라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그럴 리야 절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 삶을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니 말이다. 내 시청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를 보는 시청자들의 삶도 밝아지도록... ☺

밖으로 열리는 문

방공포병사령부 중위 장 동 하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
 마음보다 몸이 먼저 서두른다
 귀한 손님 오신다는 전화,
 오신다는 시각 아직인데
 서툰 비질, 걸레질로
 늦잠 자는 먼지들 흔들어 깨우고
 귀하신 발걸음 헛되지 않도록
 한 상 가득 차려 준비한다

저녁 어스름 깔릴 무렵
 초인종 소리, 가슴 설레며
 현관문 밀어 여는데,
 그분 한 걸음 물리신다
 모실 준비 다한 줄 알았더니
 마음 아닌 몸으로 준비했구나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리며
 귀한 걸음 모셔야 하는데,
 마음이 먼저 반기며
 귀한 손님 모셔야 하는데,
 내 집에 오시는 그 발걸음
 마음에 빗장 걸고 몸만으로
 맞이하는 부족한 정성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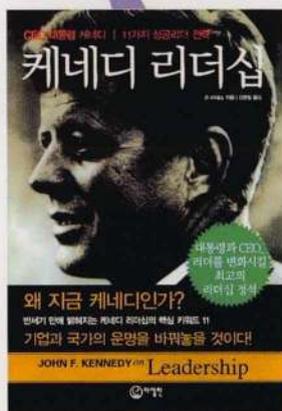


詩作메모

우리네 사는 집을 보면 대부분의 현관문 등은 밖으로 뚫어서 여는 문입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날 저희 집을 찾아오신 손님께서 제가 뚫어 여는 문에 한 걸음 물리시는 것을 보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정성들어 차려놓은 음식들도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손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정성, 그리하여 손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리며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꼭 요하지는 않을까요?

존 바네스의

「케네디 리더십」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가장 인기있는 대통령, 케네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1961년 당선된 후 1963년 암살당하기까지 3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재임했지만, 그가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이미지는 다른 위대한 대통령들 못지않게 강렬하다. 특히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은 케네디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클린턴이 소년시절 케네디와 만나서 약속했던 사진을 공개했던 것이나, 존 케리가 윈드서핑하는 모습을 공개했던 것은 케네디와의 연관성을 강조해 인기를 끌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렇듯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케네디에 대해서는 분명 그 평가가 심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미지'로 뜬 대통령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적'이 있어야 할 텐데, 재임기간이 워낙 짧아서인지 쿠바 핵위기 돌파 이외에는 그다지 큰 업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 케네디가 유명 정치인인 아버지의 후광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도 '케네디가 과연 인기만큼의 실력을 가진 대통령이었는가'라는 물음에 부정적인 편견을 던져주기 쉽다.

미국의 방향을 설정한 대통령, 케네디

이런 케네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케네디 리더십」은 단호히 No라고 대답한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2차대전 후 미국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케네디였다. 인종차별정책의 완전한 철폐 및 구 소련에 대한 공세적 입장, 우주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은 케네디 재임시절 입안되고, 케네디의 승인을 받은 정책들이다.

특히 케네디는 기득권 세력이 반발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다. 케네디 암살에 공공연히 CIA와 마피아 개입설이 떠도는 것을 보면 개혁안들의 강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인종정책의 경우 케네디의 소속정당인 민주당 소속의원들로부터도 반대의견을 들었을 정도로 과감했다.

물론 케네디의 리더십이 잘 나가는 부모를 만난 덕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정치가로서 '잘 나가는 가문'이라는 배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처럼 자수성가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높은 국가에서 케네디의 배경은 그를 '세상물정 모르는 애송이'로 보이게 할 뿐이었다.

그러나 케네디가 선택한 것은 자신을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위장시키는 것이 아닌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는 태연함과 당당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케네디가 미국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시작한 기점이 아닌가 싶다.

케네디가 가져온 리더십의 혁신을 다룬 「케네디 리더십」은 모두 11개의 항목으로 케네디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있다. 실존인물의 리더십을 분석한 책이므로 리더십 배양서적임에도 위인전적인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느 고리타분한 옛 사람이 아닌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들이므로 꽤나 재미난 독서경험이 될 것이다. Ⓣ

뜻내향 가득한 5월의 햇살 아래

제73기상전대 대령 염영경



아기자기한 라일락 향기

계절이 부푸는 이 교차점에서 청춘은 함초롬이 젖어나고
 년 이브인가 푸른 유혹이 깃들어 감미롭게 핀 황홀한 5월

- 김용호 作 '5월의 유혹' 中 -

5월은 생명과 소망이 어우러진 뜻내향 가득한 계절의 여왕이다. 5월에는 주로 따뜻하고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균 16~19도의 온화한 기온에 60~110mm 정도의 적당한 비가 내린다. 각종 훈련이나 교육을 하기에 좋은 기상조건으로 일의 능률도 높은 달이다.

하지만, 대기가 안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내륙의 짙은 안개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는 해무(海霧)는 심한 경우 오후까지 지속되어 항공작전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니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다. 또한, 기온상승으로 심신이 이완되고 행락철을 맞이하여 야외 활동과 차량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각종 지상 안전사고에도 특별히 유의해야겠다.

5월에도 산불주의!

봄철의 건조한 날씨는 5월에도 이어져 지속적으로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의 통계에 의하면 산불은 1년 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5월에도 월 평균 30회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월에도 산불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해야겠다.

절기로는 여름에 들어선다는 입하(立夏)가 6일이며, 본격적으로 농사철로 접어들어 보리가 익어가며 부엉이가 울어댄다는 소만(小滿)이 21일이다.

계절의 여왕, 5월

5월은 싱그러운 산내음이 코끝을 간질이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산은 푸름으로 가득하고 들에는 수많은 꽃들이 저마다의 눈부신 자태를 뽐낸다.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풀피리소리, 훈풍에 실려오는 향긋한 꽃내음... 계절의 여왕 5월은 화려하기만 하다.

입하가 지나면 일교차가 크고 변화 많던 날씨는 안정되고 천지만물은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한다. 나뭇잎을 활짝 피운 숲은 녹음을 더하고, 아직 잎을 피우지 못한 나무들은 마지막 싹을 피워 푸름의 절정을 맞는다. 산에는 뽕꾸기가 울고 들에는 온갖 나물들이 지천으로 돌아나 입맛을 돋우는 5월. 여왕님의 빛나는 자태를 마음껏 즐겨보자. ☺



독

자

의

소

리

<생각하는 그림 - 복부제의 선택>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이 칼럼을 두고 볼 요량으로 예쁘게 스크랩해서 모아두고 있는데 읽으면 입을 수룩 배를 점이 많습니다. 월간 공군만의 특별한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서울시 중구 김은혜

이번호의 <현장 속 현장 - F-16 최초 운용 161세대 창대 20주년!>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으로 정말 멋진 공군이 탄생하였나 봅니다.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도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주영

'모형항공기 DIY'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모형항공기 재료를 가지고 와서는 제게 같이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기도는 꽤나 어려웠습니다. 원리 이해와 조각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모형항공기 만들기의 주의사항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전남 여수시 김아연

퀴즈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즘 TV에서 퀴즈프로그램 어렵지 않게 보면서 맞히는 재미와 함께 스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퀴즈! 대한민국'에 공군 현역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지면으로 다시금 만나면서 '도전하는 젊음이 아름답다'는 말이 '당근과 채찍'처럼 다가왔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최애정

이번호 모든 내용에서 감동을 받았지만, 그 중 <동아리 열전 - 8217부대 음악동아리 'Heaven'>편을 읽고 일상생활의 고단함을 풀어주고 음악으로 동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해주시는 'Heaven'의 모든 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군생활도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 믿음직스럽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조만용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 □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책홍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호) 6295, 02) 506-629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독자퀴즈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독자퀴즈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독자퀴즈 Quiz

프린트 | 온라인 | 고사 | 이메일 | 차 | 아 | 라 |

두 사진의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대를 찾아 독자퀴즈 업서에 표시하여 보내주세요.

2006년 5월호 독자퀴즈 문제



• 사진설명 :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바 '니콜라스네'



※ 정답 업서 마감일 : 5월 22일까지

2006년 4월호 독자퀴즈 정답



2006년 4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 전남 여수시 김아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지연
- 전북 김제시 병장 김진수
- 광주광역시 남구 박홍규
- 대구광역시 서구 신혜정
- 광주광역시 남구 여주영
- 부산광역시 동구 이창현
- 경기도 시흥시 조만용
- 대구광역시 동구 최애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박상현

<공군지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공군인들의 종합양묘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공군」담당
(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mil.kr, (인트라넷) minjkang@af.mil

국군기무사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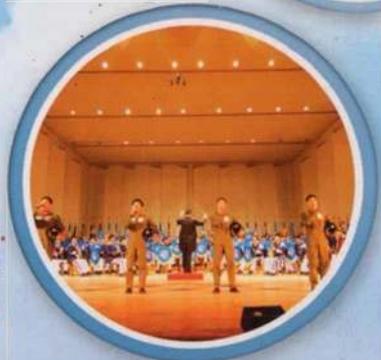
(<http://www.dsc.mil.kr>)

간첩/안보사범 및 테러범 신고상담 080-777-1113



공군군악대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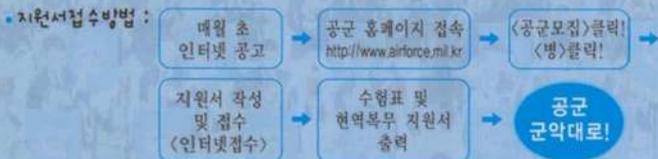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윈드 앙상블, 사물놀이, 실내악팀, 그룹사운드, 중창단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수양하고 있는 공군군악대는 항상 열린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집요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건강한 자
 - ※연령 : 만 18세~만 25세까지의 남자
 - ※신체 : 장병신체검사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3급 이상인 자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구비서류** : ※현역복무지원서(인터넷접수) - 1부
 - ※수험표(인터넷접수 확인 후 출력) - 1부
 - ※대학전체학기 성적증명서(대학 성적 입력자에 한함) - 1부
 - ※주민등록등본 - 1부
 - ※사진(3×4)신체검사 및 면접일에 구비서류 반드시 제출 - 3부

- **선발분야** : 관현악기 / 국악기 / 정악 / 사물놀이 / 보컬 / 밴드 / 음향 (선발 분야는 시기에 따라 변동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목** : 실기(자유곡 1곡 및 초전) 및 체력검정

- **복무기간** : 입대 후 27개월

- **특 전** : 연고지 고려배속, 파트별 전문강사 초빙 개인교습, 충분한 개인연습시간

※장교·부사관 시험은 공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군군악대 •

(02)506-4883/(042)552-4883, 4886